

고등은 입학 전에 시작하는 학생이 앞서갑니다.

예비고1

고등 문학 부스터 BEST 3 작품 분석 자료

고등 문학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대표 작품

족보닷컴 예비고1 Z-PASS 사전 알림 혜택

[고등 문학 부스터] 갈래별 BEST 3 작품

1. 시 : 나희덕, 「땅끝」
2. 소설 : 김초엽, 「관내분실」
3. 극 문학 : 신연식 각본, 「동주」

[시]

나희덕, 「땅끝」

시를 읽을 때는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자!

22개정 교과서 수록 | 고1 천재(김수학)

학평 출제 | 2018년 고1, 2016년 고3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에 의한 표시

1) 제작연월일 : 2025-02-12

2) 제작자 : 교육지대㈜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외에도「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학사 개관

• 시대 특징 (1990년대 이후)

- 1) 신자유주의가 자리 잡고 시민 사회가 성장하여 1인당 국민 소득이 크게 상승함.
- 2) 1997년 외환 부족으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 자금을 지원받음.
- 3)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이 결성되어 사회 개혁과 노동자 계층의 정치 세력화에 힘씀.
- 4)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자라면서 환경 운동 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짐.
- 5) 1990년대 드라마로부터 시작하여 K-POP까지 한류가 세계로 진출함.

• 문학 경향

현대시 다원화, 생태주의 시, 사실주의적 내용 탈피, 페미니즘, 다문화 문학

- 1) 전통적 서정시, 리얼리즘, 모더니즘 간의 분류가 유연화 되면서 한국 현대 시단이 다원화 양상을 보임.
- 2) 서구에서 주목 받았던 생태주의 시가 환경 오염의 실태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관심을 받게 됨.
- 3) 자아와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개인의 욕망과 일상이 부각되는 소설이 중심으로 성장함.
- 5) 여성 작가들이 대거 등장하며, 가정이나 가족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체성을 찾는 페미니즘 문학이 등장함.
- 6) 역사적 사건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현대 사회의 모순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설이 이어짐.
- 7) 외국인 문제를 다룬 작품이 꾸준히 쓰이고 소비되며, 연민의 시각만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위한 고민이 확산됨.
- 8) 인터넷 문학과 독자들이 쌍방으로 소통하며 문학성을 인정받는 작품들이 많아짐.

작가 소개



• 나희덕 (1966~), 충청남도 논산

16살에 선생님의 권유로 백일장에 나가 상을 받으면서 문학과 연을 맺었다. 연세대에서 국문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과기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사유와 생태적 감수성, 공동체와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애정을 다룬 서정적인 시들을 주로 썼다. 1989년 시 <뿌리에게>로 등단하여 현재까지 열 권의 시집과 다수의 산문을 발표했다.

• 주요 작품 : 인생의 절망 속에서 깨달은 역설적인 희망을 표현한 ★《땅끝》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연대의 힘을 노래한 ★《산속에서》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깨달음의 과정을 보여준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귀뚜라미를 의인화하여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 ★《귀뚜라미》

아비 제비의 모습을 통해 고달픈 삶을 살았던 아버지에게 대한 연민을 표현한 《못 위의 잠》

역설적 표현을 통해 벗어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푸른 밤》

작품 미리보기

• 개관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사색적, 관조적, 회상적											
제재	땅끝 마을											
주제	절망적 인생 속에서 발견한 역설적 희망											
특징	1) 과거와 현재를 교차해 시상을 전개함. 2)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주제를 전달함. 3) ‘땅끝’을 중의적 표현으로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4) ‘-지’와 같은 종결 어미나 시구 ‘-는 것이’를 반복해 운율을 형성함. 5) 실제 지명을 모티프로 해 삶의 의미를 사색함. 6) 시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형상화함. 7) 화자의 인식 전환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됨.											
구성	1연 : 꿈과 이상을 추구하다 좌절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2연 : 인생을 살면서 몇 번씩 겪게 되는 ‘땅끝’과 같은 절망감 3연 : 절망 속에서 깨달은 삶의 희망 <table><tr><td>1연</td><td>2연</td><td>3연</td></tr><tr><td>꿈과 이상이 좌절된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과거)</td><td>‘땅끝’과 같은 인생의 고비에서 느끼는 절망감 (현재)</td><td>절망의 순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 함.</td></tr><tr><td>절망</td><td>절망</td><td>희망</td></tr></table>			1연	2연	3연	꿈과 이상이 좌절된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과거)	‘땅끝’과 같은 인생의 고비에서 느끼는 절망감 (현재)	절망의 순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 함.	절망	절망	희망
1연	2연	3연										
꿈과 이상이 좌절된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과거)	‘땅끝’과 같은 인생의 고비에서 느끼는 절망감 (현재)	절망의 순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 함.										
절망	절망	희망										

• 핵심 시어

노을	꿈과 이상, 아름다움
어둠	꿈과 이상의 좌절, 고난과 절망
그넷줄	이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나비	어린 시절의 순수한 꿈, 이상
땅끝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한반도 최남단 마을의 지명. 미지의 세계, 이상적 공간, 인생의 끝(절망)
파도	시련, 고통, 현실적 두려움

• 핵심 시구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이상과 꿈이 좌절된 과거의 모습을 음성 상징어,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함.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인생을 살면서 절망과 좌절을 겪게 된다는 의미로 인식의 전환이 나타남.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절망 속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역설적 인식과 깨달음이 드러남.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

땅끝

- 나희덕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 어린 시절의 꿈, 이상, 아름다움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시도, 역동적 이미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 어린 시절의 꿈이 좌절됨.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넷줄이

↳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 화자의 불안과 절망, 두려움을 그넷줄이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 형상화함. 음성상징어(의성어)사용.

▶ 1연: 꿈과 이상을 추구하다 좌절
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 어린 시절의 순수한 꿈과 이상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 중의법, ① 실제 지명 ② 미지의 세계, 이상적인 공간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 '땅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 시상의 전환 (과거→현재) ↳ 중의법, ③ 삶에서 겪게 되는 고비, 절망과 좌절의 상황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들어오는 막바지에서

↳ 시련, 고통 ↳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

이렇게 뒷걸음질치면서 말야

↳ 절망적 상황에 처한 현재의 화자의 모습

▶ 2연: 인생을 살면서 몇 번씩 겪게
되는 '땅끝'과 같은 절망감살기 위해서는 이제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 절박한 상황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인식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 삶의 위기를 감각적으로 표현. 활유법

찾아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 절망적 상황. 부정적 현실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 시상(인식)의 전환 (절망→희망)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 역설법,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삶의 희망을 발견함.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 절망 속에 희망을 품고 있는 공간

그걸 보려고

↳ 절망 속에서 발견하는 삶의 의미, 삶의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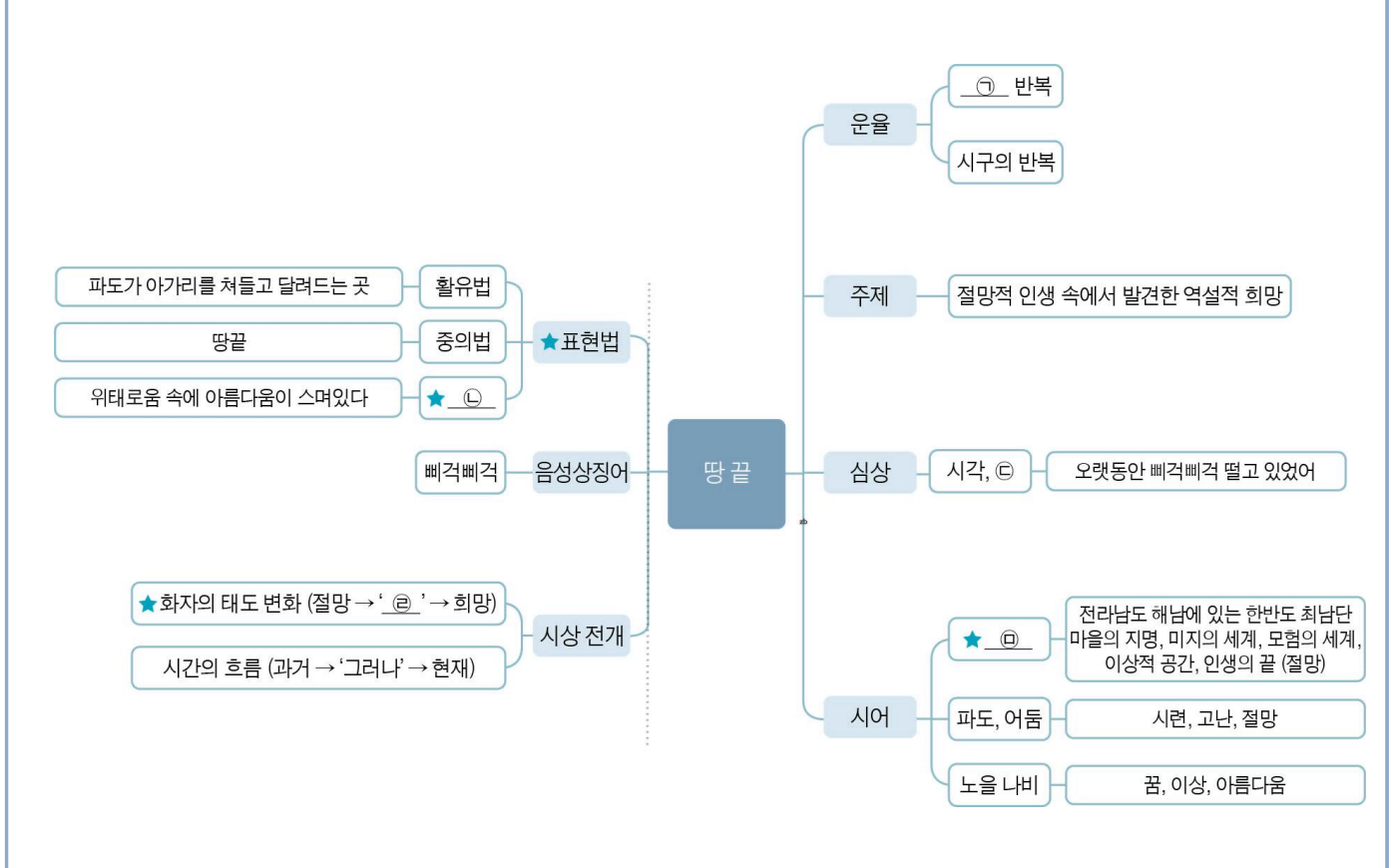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 절망이 반복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찾겠다는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가 드러남.

▶ 3연: 절망 속에서 깨달은 삶의
희망

작품 정리

작품 구조도 완성하기



- ㉠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 종결 어미, ㉡ 역설법, ㉢ 청각, ㉣ 그런데, ㉤ 땅끝

• 체크 포인트 완성하기

화자	화자는 1) □□□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2) □□□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황	땅끝(절망)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3) □□□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태도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4) □□에서 5) □□으로 정서와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1) 절망적, 2) 긍정적, 3) 역설적, 4) 절망, 5) 희망

핵심 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넷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좇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치면서 말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 나희덕, <땅끝>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 회상을 통해 어린 시절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시상의 전환을 통해 성인이 된 후의 화자의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느낀 두려움과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시어의 중의성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2 다음 중 ㉡과 유사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 ① 두 불에 흐르는 빛이 /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조지훈, <승무>
- ② 아아, 님은 떠났습니다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③ 이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보다.
 - 이육사, <절정>
- ④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 백석, <여승>
- ⑤ 봄이면 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 고재종, <첫사랑>

3 윗글의 ㉢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은?

- ① 멀리 노루 새끼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아보십니까? // 그 나라에 가실 때에는 부디 잊지 마세요 / 나와 같이 그 나라에 가서 비둘기를 키웁시다.
 - 신석정, <그 먼 나라를 알아보십니까>
- ② 저 산(山)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 서산(西山)에는 해 진다 고 / 지저귀니다. // 앞 강(江)물, 뒤 강(江)물, / 흐르는 물은 /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 김소월, <가는 길>
- ③ 고통과 설움의 땅 험험 지나서 /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 듯 /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 ④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 정지용, <고향>
- ⑤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 이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며 / 낮선 그대와 만날 때 / 그대와 나는 왜 / 숲이 아닌가
 - 정희성, <숲>

4 다음 중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 ㉡, ㉢, ㉣은 모두 꿈, 이상, 희망을 상징하는 시어로 사용되었다.
- ② ㉠은 현실 극복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 ③ ㉢은 어린 시절 화자의 꿈이 좌절된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④ ㉣은 절망적인 상황이자 삶의 위기를 표현한 것이다.
- ⑤ ㉤은 위태롭고 절망적이지만 희망을 품고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차장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쓰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나희덕, 「땅끝」-

5 윗글의 화자가 <보기>의 화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서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속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 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깎깎대면서
일렬 이열 삼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깎깎대면서
깎깎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 앉는다.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① 지극히 사적이고 유희적인 영역의 고민을 극복하기 위해 때로는 '땅끝'에 서 보십시오.
- ② 너무 복잡해서 사고하는 개인의 삶이 시대를 더 힘들게 하니 좀 더 단순해지시길 바랍니다.
- ③ 당신의 좌절은 시대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것이니 개선하려고 해도 바꾸기가 힘들 것입니다.
- ④ 당신이 느끼는 자괴감은 당신을 단련시켜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 ⑤ 어딘가에 있는 이상향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재 위치에 서 안주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은 '그네'의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상향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을 좇는 어린 시절의 화자를 보여 준다.
- ② 2연의 '그러나'는 2연의 '어릴 때는'과 3연의 '이제'에 주목하게 하여 시간의 추이에 따라 나타나는 인식의 전환을 보여 준다.
- ③ 2연에서 살면서 서게 되는 '땅끝'은 '파도'와 '땅'의 관계를 통해 화자가 처한 절망적인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2~3연에서 '뒷걸음질'의 반복으로 화자의 절박한 상황이 강조되고 있다.
- ⑤ 3연의 '땅의 끝'과 '땅끝' 사이에 위치한 '그런데'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의 전환을 나타내고 있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넷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좇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 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 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 질치면서 말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 나희덕, '땅끝'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넷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좇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치면서 말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 나희덕, 「땅끝」

7 윗글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유년의 동경이 좌절된 후에 느낀 화자의 불안과 절망의 감정을 노을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 : 보고 싶은 것이 어둠에 의해 사라져 느끼는 절망의 심정을, 삐걱거리며 떨고 있는 그넷줄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 현실적 욕망에 사로잡힌 현재의 화자를, 무언가에 이끌려 나비를 좇듯 땅끝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④ ㉣ : 인생을 살다가 마주하는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을 뒷걸음치는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 : 화자가 서 있는 구체적 공간으로,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에 화자가 내몰려 있음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을을 보기 위해 그네에서 발을 굴리는 모습을 통해 이상적인 공간을 갈망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그넷줄이 떨고 있다는 모습을 통해 화자의 불안한 내면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아름다움에 취해 찾아간 땅끝의 모습을 통해 화자는 어린 시절의 환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 ④ 땅끝에서 뒷걸음질 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삶의 위기를 직면한 화자의 절박함을 엿볼 수 있다.
- ⑤ 땅끝이 늘 젖어 있다는 것을 인식한 화자의 모습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 [A]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넛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 [B]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 [C]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야
-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 [D]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 [E]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 나희덕, 「땅끝」

10 윗글의 ㉠,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희망과 이상을 향해 나아가 보려 했던 수단으로 1연의 '그네'를 사용했겠군.
- ② ㉠이 어린 시절에 '쫓아서 간 곳'이라면 ㉡은 어른이 된 후 '쫓겨온 곳'에 해당하는 군.
- ③ ㉡은 '파도'와 '땅'의 관계와 '뒷걸음질'이라는 시어를 통해 화자가 처한 절박한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군.
- ④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는 ㉡의 모습에서 과거로 회귀(回歸)하여 현재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군.
- ⑤ 늘 '젖어 있'어 마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자는 살면서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를 것이라며 ㉡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 고 있군.

9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힘차게' 발을 구르는 화자의 소망과 노을이 '잡아먹'히는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절망감을 '삐걱삐걱'이라는 의성어를 통해 형상화했다.
- ② [B]는 과거의 화자가 '땅끝'을 찾아간 행동이 '아름다움'을 동경하기 때문임을 '나비를 쫓듯'이라는 비유를 통해 드러냈다.
- ③ [C]에서 '땅을 먹'던 파도가 [D]에서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모습으로 변한 것은 화자가 느끼는 '위태로움'의 정도가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 ④ [D]의 '땅의 끝'은 [B]와 [C]의 '땅끝'과는 달리 의도치 않게 도달하게 되는 곳임을 '찾아 나선 것도 아니'라는 표현으로 강조했다.
- ⑤ [E]는 '그런데'를 기점으로 '땅끝'은 땅의 끝임과 동시에 '젖어 있'는 바다의 시작임을 새로이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이 드러난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①

[해설] 1연에서 화자는 유년 시절의 체험을 회상하고 있지만, 이는 동경의 대상이었던 과거의 '땅끝'과 살기 위해 뒷걸음질 쳐야 하는 현재의 '땅끝'의 의미를 대비하고 있을 뿐, 어린 시절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는 무관하다. ② 1연의 '땅끝'의 아름다움과 대비하여 2연의 '그러나'부터 '땅끝'의 위태로운 속성이 제시되고, 3연의 '그런데' 이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시상의 전환을 통해 성인이 된 후의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1연의 '삐걱삐걱'이라는 음성상징어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꿈이 좌절되고 난 후 화자가 느끼는 위태로움과 절망감을 드러낸다. ④ 1연에서 '그넷줄이' '삐걱삐걱' 떨고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삐걱삐걱'이라는 청각적 심상과 '떨고 있었다'라는 시각적 심상을 통해 이상이 좌절된 화자의 절망감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땅끝'은 실제 지명인 해남의 땅끝 마을이라는 뜻과 삶의 끝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삶의 극한 상황에서 발견한 새로운 삶의 희망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 [정답] ④

[해설]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표현은 논리적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을 일부러 사용하여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역설법에 해당한다.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는 '어린 딸'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역설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① '고와서 서러워라' 부분이 역설에 해당한다. ② '님은 떠났습니다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부분이 역설에 해당한다. ③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부분이 역설에 해당한다. 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부분이 역설에 해당한다.

3) [정답] ①

[해설] ①'땅끝'은 어린 시절 꿈을 위해 찾아간 공간이며 이상적 공간으로, '노루 새끼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평화롭고 이상적인 '먼 나라'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 ② '서산'은 해가 지는 공간으로, 이별을 재촉하는 시간적 이미지를 강조한다. ③ 고통과 설움의 '땅'은 '눈물', '비탄'과 어울려 괴로운 공간을 의미한다. ④ '고향'은 그리워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이다. ⑤ 메마른 '땅'은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는 현실 세계를 의미한다.

4) [정답] ①

[해설] 고와서 보려고 했던 '노을'과 쫓아가던 '나비'는 꿈, 이상을 상징하는 시어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①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들어오는 막바지에서' 뒷걸음질 쳐야 하는 절망적이고 위태로운 상황을 의미한다. ② ①은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하늘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화자에게 이상을 향해 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자 현실 극복의 수단이 된다. ③ ①은 그 넷줄이 '삐걱삐걱' '떨고' 있었다는 것에서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꿈이 좌절되고 난 후 느끼는 화자의 절망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④ ①에서 활유법과 시각적 이미지를

를 통해 삶의 극한적 위기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⑤ 화자는 위태로운 현실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며 절망의 순간에서 회피하지 않고 희망을 찾으려 하므로, ①을 위태롭고 절망적이지만 희망을 품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5) [정답] ④

[해설] <보기>에서는 영화를 보기 전에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해야 하는 군사독재 시기의 전체주의적 사회가 드러난다. 화자는 이러한 사회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이내 '주저앉아버리는 좌절을 겪는다. 이에 대하여 <땅끝>의 화자는 절망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더 나아가도록 조언할 것이다. ① <보기>에는 시대적 고민이 담겨 있으므로 '지극히 사적이고 유희적인 영역의 고민'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 시대를 힘들게 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사회이므로 옳지 않다. ③ 시대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좌절이라는 점은 옳으나, 바꾸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땅끝>의 화자가 할 말로 어울리지 않는다. 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땅끝>의 화자가 할 말로 보기 어렵다.

6) [정답] ①

[해설] 1연의 '그네'가 역동적 이미지를 지닌 것이 아니라 그네를 차고 발을 굴리는 화자의 행동을 통해 역동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또한, 1연에서 화자가 이상향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상을 좇았다고 보기 어렵다. 화자는 어린 시절 순수한 꿈을 보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절망을 겪게 된 것이다. ② 어린 시절의 화자는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았으나, 현재의 화자는 '땅끝'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인식의 전환은 2연의 '그러나'를 통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③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의 '땅끝'은 위태롭고 절망적인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뒷걸음질'은 땅의 끝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화자의 절박함과 두려움을 강조한다. ⑤ '땅의 끝'에서 화자는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그런데' 이후에서는 그 위태로움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희망을 찾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화자의 인식의 전환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7) [정답] ③

[해설] '나비를 좇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간 것은 어린 시절의 화자가 자신의 꿈과 이상을 찾아간 것이므로, 현실적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아름다운 노을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은 동경이 좌절된 뒤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과 불안의 감정을 형상화한 것이다. ② 그넷줄이 '삐걱삐걱' 떨고 있었다는 것은 꿈이 좌절되고 난 후 화자가 느끼는 좌절감과 절망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뒷걸음질을 치는 모습을 통해 땅끝에서 절망과 좌절을 마주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⑤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땅끝에 바다를 마주하고 서 있는 것은 위기를 맞아 위태롭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화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8) [정답] ⑤

[해설] 땅끝이 늘 젖어 있다는 것은 위태로운 현실이지만 그 안에 희

망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지향하는 태도로는 볼 수 없다. ①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에서 발을 구르는 모습은 이상과 희망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어린 시절의 화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② 자신이 보고자 했던 이상이 좌절된 후의 절망감을 '그넷줄'이 삐걱삐걱 떨고 있다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아름다움에 취해 찾았던 땅끝이 '끝이 아니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꿈이 좌절된 이후 화자가 얻게 된 땅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의미한다. ④ 땅끝에서 뒷걸음질 치는 화자의 모습은 절망적이고 위태로운 순간의 삶에 대한 절박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9) [정답] ④

[해설] [C]와 [D]의 '땅끝'은 삶의 위기상황과 좌절을 의미하므로 의도치 않게 도달하게 되는 곳이지만, [B]의 '땅끝'은 아름다움에 취해 찾았던 곳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화자는 자신이 보고 싶어 했던 '아름다운 노을'이 좌절된 후의 절망감을 '그넷줄'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② 과거의 화자는 땅끝을 찾았던 이유를 '아름다움에 취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어린 시절 나비를 쫓던 경험에 비유하고 있다. ③ 땅을 먹어 들어가는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모습은 절망적이고 위태로운 현실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이 심화되었음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⑤ '그런데' 이후부터 화자는 '땅끝'이 삶의 극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다의 시작이기도 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10) [정답] ④

[해설]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인식은 삶의 위태로움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음을 드러낸다. 과거로의 회귀 의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① 화자는 산 너머의 '고운 노을'을 보기 위하여 '그네'를 이용하였으므로, '그네'를 희망과 이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② 아름다움에 취해 찾아갔던 '땅끝'은 어린 시절의 화자가 스스로 '쫓아서 간 곳'이고, 삶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끝내 마주하게 되는 '땅끝'은 현재의 화자가 '쫓겨온 곳'이라고 볼 수 있다. ③ '파도'가 끝없이 '땅'을 먹어 들어가고, 그에 대해 화자는 뒷걸음질 치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화자가 처한 위태로운 현실과 그에 대한 절박한 심정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⑤ 화자는 '땅끝'이 땅의 끝이기도 하지만 바다의 시작이라는 새로운 인식에 도달한다. 이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화자는 이에 따라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소설]

김초엽, 「관내분실」

소설에서는 사건,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자!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에 의한 표시

1) 제작연월일 : 2025-02-14

2) 제작자 : 교육지대(주)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외에도「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학사 개관

• 시대 특징 (1990년대 이후)

- 1) 신자유주의가 자리 잡고 시민 사회가 성장하여 1인당 국민 소득이 크게 상승함.
- 2) 1997년 외환 부족으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 자금을 지원받음.
- 3)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이 결성되어 사회 개혁과 노동자 계층의 정치 세력화에 힘씀.
- 4)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자리면서 환경 운동 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짐.
- 5) 1990년대 드라마로부터 시작하여 K-POP까지 한류가 세계로 진출함.

• 문학 경향

현대시 다원화, 생태주의 시, 사실주의적 내용 탈피, 페미니즘, 다문화 문학

- 1) 전통적 서정시, 리얼리즘, 모더니즘 간의 분류가 유연화 되면서 한국 현대 시단이 다원화 양상을 보임.
- 2) 서구에서 주목 받았던 생태주의 시가 환경 오염의 실태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관심을 받게 됨.
- 3) 자아와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개인의 욕망과 일상이 부각되는 소설이 중심으로 성장함.
- 5) 여성 작가들이 대거 등장하며, 가정이나 가족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체성을 찾는 페미니즘 문학이 등장함.
- 6) 역사적 사건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현대 사회의 모순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설이 이어짐.
- 7) 외국인 문제를 다룬 작품이 꾸준히 쓰이고 소비되며, 연민의 시각만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위한 고민이 확산됨.
- 8) 인터넷 문학과 독자들이 쌍방으로 소통하며 문학성을 인정받는 작품들이 많아짐.

작가 소개

• 김초엽 (1993 ~), 울산광역시 출생

김초엽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는데, 특히 화학책에서 물질 개념에 주목한 이후 과학 서적을 탐닉하였다고 한다. 그는 10대 후반에 고주파 영역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3급 청각장애인이 되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포항공과대학교에 입학해 생화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초엽은 대학원 졸업을 앞둔 2017년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부문에서 <관내분실>로 대상을,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으로 가작을 동시 수상하며 데뷔하였다. 그는 주로 과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의 문제와 삶의 진실을 탐구하는 과학소설을 쓴다. 그는 대학에서 교지편집위원회, 과학철학 세미나 활동을 통해 글쓰기 능력을 키우고, 과학 칼럼에서 소설의 글감을 찾아낸다고 한다.

• 주요 작품 : 사후 마인드 업로딩이 보편화된 미래에서 엄마의 분실된 마인드를 추적하는 ★《관내분실》

우주 개척 시대, 가족들이 이주한 행성으로 가지 못하게 된 한 노인의 이야기를 다룬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당굴식물이 빠르게 증식하는 폐허 도시의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지구 끝의 온실》

죽은 땅 위에 건설된 지구상 최후의 디스토피아인 트레모사의 감춰진 진실을 드러낸 《트레모사》





작품 미리보기

• 개관 정리

갈래	과학소설, 단편 소설, 현대 소설		
성격	과학적, 현실 비판적		
배경	• 시간 : 미래 • 공간 : 한국 사회, 도서관		
시점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사회에서 고립되어 살았던 엄마의 삶에 대한 공감		
특징	1) 간결한 문장으로 속도감을 느끼게 함. 2) 미래의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사건이 전개됨. 3) 전지적 서술자가 초점 화자의 시각으로 사건을 서술함.		
구성	- 역순행적 구성(입체적 구성)		
	구성 단계	시간	주요 사건
	발단	현재	엄마가 세상을 뜬 후 처음으로 엄마의 마인드에 접속하려던 지민은 도서관 사서로부터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되었음을 듣게 됨.
	전개	과거	지민은 우울증을 앓던 엄마가 가족에게 집착해 갈등을 일으켰던 과거를 떠올리게 됨.
	위기	현재	엄마의 인덱스를 찾던 지민은 엄마가 자신을 낳기 전에 책 표지를 만드는 일을 했지만, 출산 후 일을 그만두고 세상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음을 알게 됨.
	절정	현재	엄마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 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한 지민은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인덱스가 될 만한 엄마의 책을 도서관으로 가져가 엄마의 마인드를 찾게 됨.
	결말	현재	엄마의 마인드에 접속한 지민은 진심으로 엄마를 이해한다고 말하고 화해하게 됨.

• 주요 소재

도서관	고인의 생전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마인드를 기록해 보관하는 장소 → 소설의 배경이 미래임을 드러냄.
마인드	미래 사회에서 한 사람의 일생에 이르는 정보의 모음을 가리키는 말
관내 분실	엄마의 마인드가 도서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으나 사라졌음을 의미함.
인덱스	마인드 검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전에 고인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물건들 → 엄마가 생전에 만든 책 표지

• 전체 줄거리 요약

지민의 엄마는 살아생전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우울증을 앓던 지민의 엄마는 가족들, 특히 지민에 대한 집착이 심했고 지민은 그런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엄마의 마인드는 도서관에 저장되었다. 이후 직장생활을 하던 지민은 결혼과 임신을 하지만 태아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자 답을 찾기 위해 엄마의 마인드에 접속하려 한다. 지민은 도서관에서 엄마의 마인드를 검색할 수 있는 인덱스가 누군가에게 삭제됐음을 알게 되고, 새로운 인덱스를 찾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그곳에서 엄마가 지민을 낳기 전에는 책 표지 디자인으로 일했으나, 출산과 양육으로 일을 관두면서 점점 세상에서 고립되어 갔음을 알게 되고, 엄마의 처지가 현재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느끼며 엄마의 삶을 이해하게 된다. 관내 분실된 엄마의 마인드를 찾기 위해 지민은 엄마가 디자인한 책을 도서관으로 가지고 가게 되고, 비로소 엄마의 마인드에 접속한다. 엄마와 만난 지민은 엄마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그녀를 이해한다고 말한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

Point 1 지민은 생전에 산후 우울증을 앓으며 가족과 갈등을 일으켰던 엄마를 떠올림.

그래도 어떤 기억은 유독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날]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넘어진 보조 탁자였다. 전등이 침대 위로

↳ 과거 회상의 시작

쓰러져 있었고, 알약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까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민을 보고는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 (중략)

“송지민, 너도 이제 네 아빠처럼 나를 무시하는 거니? 전화는 왜 안 받아?”

↳ 엄마(은하):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가족을 통제하려고 함.

지민은 그냥 친구들과 있다가 늦게 들어왔을 뿐이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지적하더라도 신경질적인 비난만이 돌아올 것이다.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단지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뿐인데, 지민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전화를 받으면 엄마는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지민은 다시 숨이 막히는 기쁨을 느꼈을 것이다.

↳ 서술자가 다른 인물의 심리보다 지민의 심리에 중점을 두고 서술함.

→ 시점: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초점화자: 지민)

* 초점화자: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인물을 가리키는 말.

↳ 엄마: 가족 모두에게 소외받는다고 생각함. → ① 엄마의 내적 갈등 ② 엄마와 가족 간의 외적 갈등

“어떻게 그놈의 유전자는 어디 가질 않나. 나는 이렇게 엄마 노릇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새끼라는 녀석들은 어떻게 제 아비 하는 것처럼…….” / 지민은 내던지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말했다.

“엄마, 왜 집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 제발 입원해. 입원 안 하겠다고 고집부렸던 건 엄마잖아. 이게 무슨 엄마 노릇이야?” (중략)

↳ 지민: 엄마의 우울증을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와 갈등을 일으킴.

엄마의 표정을 마주 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지민은 엄마와 자신 사이에 남아 있던 약한 끈마저 잘라 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 엄마를 바라보는 지민의 괴로운 심정 → ① 지민의 내적 갈등 ② 지민과 엄마 간의 외적 갈등

그 대화는 지민이 기억하는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결국 병원에 들어갔다. 지민은 대학을 도중에 그만 두고 한국을 떠났다.

↳ 엄마와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엄마를 떠남.

Point 2 엄마의 유품을 살피던 지민은 자신을 낳기 전 엄마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됨.

팀장은 지민을 불러 업무 분장이 끝났다고 통보했다. 새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민의 업무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지민이 맡아 왔던 업무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 주는 일만 남았다. 팀장은 지민이 곧 출산 휴기와 육아 휴직을 가질 것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일은 당분간 맡기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았다.

↳ 지민: 출산과 육아 때문에 업무 분장에서 차별받음. ⇔ 팀장(사회): 워킹맘에게 중요 업무를 맡길 수 없음.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면 가정에 집중해야 하잖아. 그런 걸 다 고려했어. 지민 씨가 일 욕심이 많은 건 알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가

↳ 출산과 상관없이 새로운 업무를 맡아 역량을 발휘하고 싶었음.

→ ① 산후 우울증을 앓았던 엄마를 이해하는 계기가 됨.

② 인물(지민)과 사회 간의 외적 갈등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게 아이 정서에 좋다고 생각하거든. 지민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책갈피를 들어 올리자 가려져 있던 글씨가 보였다. / [표지 디자인. 김은하] 열흘 만에 처음으로 찾은 은하의 이름이었다.

↳ 지민을 낳기 전, 엄마가 책 표지 디자이너였음을 알게 됨.

현옥이 말했다. / “너희 엄마가 일하던 곳에서 퍼낸 책이야. 지금은 이런 종이책을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 종이책이 없는 사회 → 시간적 배경(미래 사회)을 드러냄.

지민이 물었다. / “엄마가 책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 “너를 낳기 전까지는 했었지.”

인덱스가 있었다. / 생각지도 못한 곳에.

↳ 마인드를 찾을 수 있는 표식 → 지민: 엄마가 디자인한 종이책이 엄마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함.

엄마의 과거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직장에 다니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그녀의 이름이 쓰인 무언가를 만들었으리라는 생각도. 지민이 알던 엄마는 언제나 집 안에서 무기력한 얼굴을 한 모습이었으니까. 하지만 왜 몰랐을까. 당연한 일이었다.

↳ 자유로웠던 은하의 삶이 지민 때문에 박탈당했음을 비유함.

은하에게도 지민을 낳기 전의 삶이 있었을 것이다. 아이라는 족쇄에 아직 걸리지 않았던 때. 그리고 어쩌면, 엄마의 진짜 삶을 가졌던 때가. ↳ 가정에만 얽매이지 않고 사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사는, 엄마가 아닌 '은하'로 사는 개인 고유의 삶 ⇔ '족쇄' ↳

(중략) 만약 그때 엄마가 선택해야 했던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어떻게든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면, 표지 안 쪽, 아니면 가장 뒤쪽 작은 글씨, 그도 아니면 파일을 만든 사람 서명으로만 남는 작은 존재감으로라도 자신을 고유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남길 수 있었다면. 그러면 그녀는 그 깊은 바닥에서 다시 걸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녀를 규정할 장소와 이름이 집이라

↳ 지민: 출산과 육아가 아니었다면 엄마의 생전 삶이 행복했을 것이라 깨달음.

는 울타리 밖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녀를 붙잡아 줄 단 하나의 끈이라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래도 엄마는 분실되었을까. (중략) 엄마를 찾아야 했다.

↳ (중의법) 분실 및 습득 대상 ① 도서관에서 사라진 엄마의 마인드 ② 엄마이기 전에 '은하'라는 개인 고유의 정체성

Point 3 엄마의 마인드에 접속해 엄마를 만난 지민은 그녀를 이해한다고 말함.

스무 살의 엄마, 세계 한가운데에 있었을 엄마, 이야기의 화자이자 주인공이었을 엄마, 인덱스를 가진 엄마, 쏟아지는 조명 속에서 춤을 추고, 선과 선 사이에 존재하는, 이름과 목소리와 형상을 가진 엄마.

↳ (열거) 출산 전,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며 살았던 은하의 모습

지민은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는 지민을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도 아이를 가져서 두려웠을까. 그렇지만 사랑하겠다고 결심했을까. 그렇게 지민 엄마라는 이름을 얻은 엄마. 원래의 이름을 잃어버린 엄마. 세계 속에서 분실된 엄마. 그러나 한때는,

↳ (열거) 출산 후, 정체성을 잃어버린 엄마의 모습 ↳

⇕ (대조)

누구보다도 선명하고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이 세계에 존재했을 김은하 씨. 지민은 본 적 없는 그녀의 과거를 이제야 상상할 수 있었다. ↳ '은하'로서의 개인 고유의 삶

시냅스 스캐닝으로 특정한 마인드를 찾아내면 보안 카드에 있는 인덱스와 연결되고 화면에 이름이 뜰 것이라고 사서는 설명했다. (중략) 세 번째 책이 끝나고, 네 번째 스캐닝. 주위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지민을 둘러싸고 결과를 기다렸다.

정적. 이따금 침묵을 파고드는 기침 소리. 초조한 시선들.

↳ 인덱스를 스캐닝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긴장된 모습

“아, 나왔어요.” / 사서가 손을 내밀어 화면에 뜬 이름을 가리켰다.

수많은 문자 사이에서 지민은 엄마의 이름을 알아보았다. / 김은하.

↳ 엄마의 마인드를 찾음.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탔다. / 마인드 접속기는 카드를 인식하고 접속을 시작하게 되어 있었다.

↳ 지민과 엄마가 화해하게 되는 매개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진짜로 엄마의 지난 삶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민은 한 발짝 다가섰다. 시선을 비스듬히 피하던 은하가 마침내 지민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지민은 알 수 있었다.

↳ 엄마: 지민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낌.

“이제…….” / 단 한마디를 전하고 싶어서 그녀를 만나러 왔다.

“엄마를 이해해요.” / 정적이 흘렀다. 은하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지민의 손끝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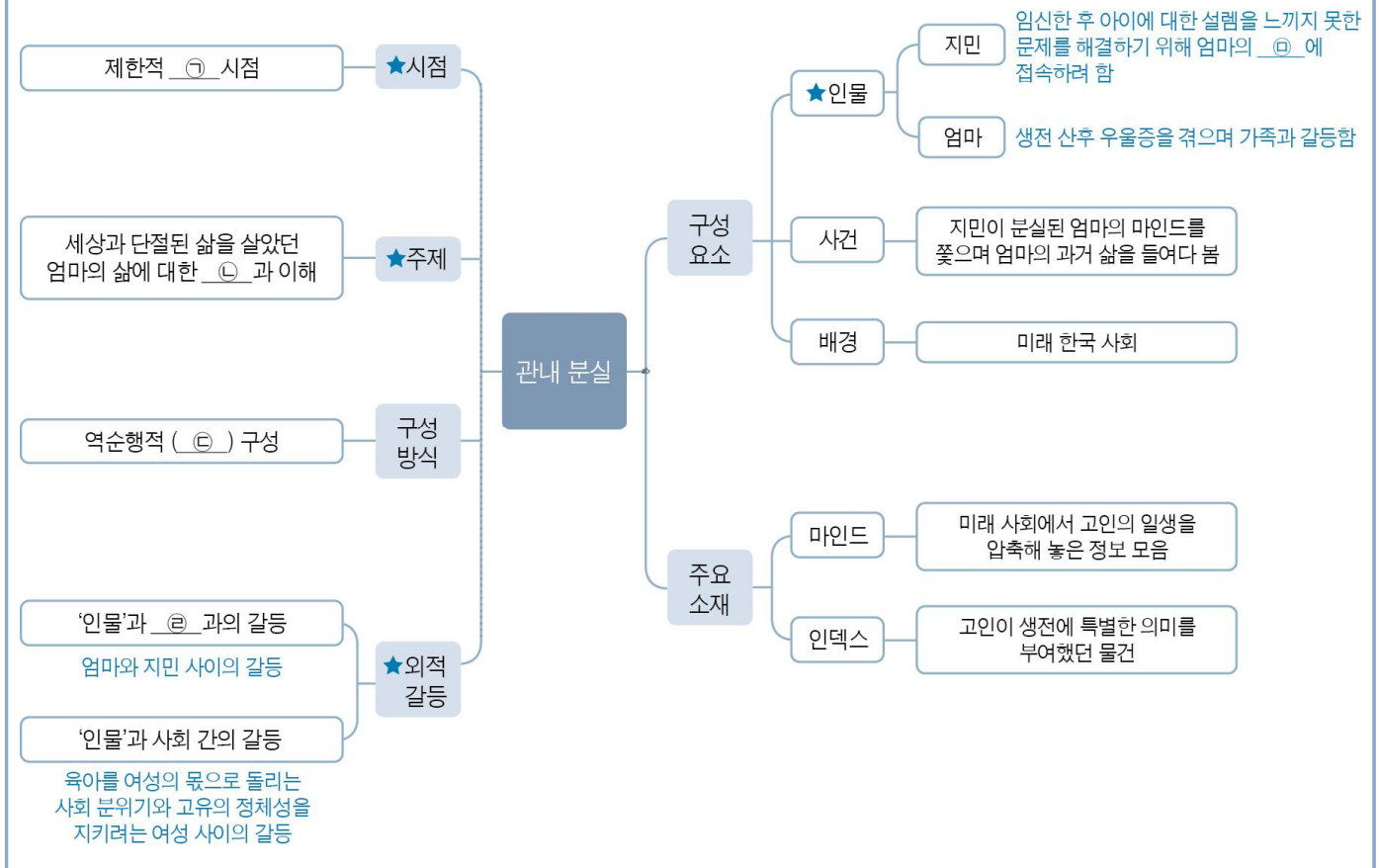
↳ 지민: 엄마와 고뇌와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함.

지민과 엄마 간의 갈등 해소 ↳

→ 주제 의식: 세상과 단절된 엄마의 삶에 대한 공감과 이해

작품 정리

작품 구조도 완성하기



- ㉠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 전지적 작가, ㉡ 공감, ㉢ 입체적, ㉣ 인물, ㉤ 마인드

• 체크 포인트 완성하기

인물	엄마는 산후 우울증을 앓으며 지민에게 1) □□하고, 지민은 엄마의 불안을 이해하지 못해 2) □□을 겪는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지민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마의 마인드에 접속하려 한다.
배경	미래 한국 사회로, 3) □□□에서는 고인의 생전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마인드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사건	지민이 엄마의 마인드를 찾기 위해 엄마의 유품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몰랐던 엄마의 생전의 삶을 알게 되고 엄마를 4) □□하게 된다.

1) 집착, 2) 갈등, 3) 도서관, 4) 이해

핵심 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돌아가신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민은 엄마의 데이터를 찾기 위해 엄마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

그래도 어떤 기억은 유독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날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넘어진 보조 탁자였다. 전등이 침대 위로 쓰러져 있었고, 알약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까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민을 보고는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

“송지민, 너도 이제 네 아빠처럼 나를 무시하는 거니? 전화는 왜 안 받아?”

지민은 뭐라고 말해야 엄마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지민은 그냥 친구들과 있다가 늦게 들어왔을 뿐이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지적하더라도 신경질적인 비난만이 돌아올 것이다.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단지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뿐인데, 지민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전화를 받으면 엄마는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지민은 다시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어떻게 그놈의 유전자는 어디 가질 않니. 나는 이렇게 엄마 노릇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새끼라는 녀석들은 어떻게 제 아비 하는 것처럼…….”

지민은 내던지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말했다.

“엄마, 왜 집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 제발 입원해. 입원 안 하겠다고 고집부렸던 건 엄마잖아. 이게 무슨 엄마 노릇이야?”

엄마의 흔들리던 시선이 지민을 향했다.

“난 엄마가 해 주는 밥이나 빨래, 설거지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떨어져 있고 싶어. 제발.”

빈정거리는 지민의 앞에서 엄마의 표정이 변했다. 엄마가 그렇게 상처받은 표정을 지을 때마다 지민은 통증 같은 슬픔을 느꼈다.

엄마는 언제나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었다. 그럴 거면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지. 아빠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지 말지. 우리가 한 시간만 전화를 받지 않아도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냥 떨어져 살지. 멀쩡할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가 돌아서는 순간 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말하 지나 말 것이지. 서로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일찍부터 서로를 체념하고 살았더라면 더 편했을 텐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엄마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왜 몰라주는 거니?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엄마한테는 나 말고 아무것도 없어? 난 너무 힘들어. 이럴 바에는 그 엄마 노릇 좀 그만하면 안 돼?”

엄마의 표정을 마주 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지민은 엄마와 자신 사이에 남아 있던 약한 끈마저 잘라 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 대화는 지민이 기억하는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결국 병원에 들어갔다. 지민은 대학을 도중에 그만두고 한국을 떠났다.

(중략)

책갈피를 들어 올리자 가려져 있던 글씨가 보였다.

표지 디자인. 김은하. 열흘 만에 처음으로 찾은 은하의 이름이었다.

현욱이 말했다.

“너희 엄마가 일하던 곳에서 퍼낸 책이야. 지금은 이런 종이책을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지민이 물었다.

“엄마가 책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너를 낳기 전까지는 했었지.”

인덱스가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엄마의 과거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직장에 다니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그녀의 이름이 쓰인 무언가를 만들었으리라 생각도. 지민이 알던 엄마는 언제나 집 안에서 무기력한 얼굴을 한 모습이었으니까. 하지만 왜 몰랐을까. 당연한 일이었다. 은하에게도 지민을 낳기 전의 삶이 있었을 것이다. 아이라는 족쇄에 아직 걸리지 않았던 때. 그리고 어찌면, 엄마의 진짜 삶을 가졌던 때가.

지민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본 현욱이 덧붙였다.

“어차피 출판사는 다 망해 가고 있었어. 미디어 회사들 모두 통합되어서 책 위주로 출간하는 곳은 사양 산업이 된 지도 한참이었고.”

지민은 멍하니 엄마의 이름을 쳐다보았다.

“뭐, 버티고 있었으면 일 년, 아니면 이 년쯤 더 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하필 그때 출산 휴가를 낸 너희 엄마가 우선 순위에 올랐을 뿐이지. 그게 네 탓은 아니었어.”

그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다. 임신이 아니었더라도 언젠가 은하는 출판사를 그만두어야 했을 것이다. 지민의 어

린 시절 기억에도 종이책들은 대부분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까.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가 종이책 표지를 만드는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버티고 있었다면, 어떻게든 붙잡고 있었다면 그녀는 다른 일을 할 수 있 었을지도 모른다.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한다. 나는 네 엄마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 그것만 아니었어도.”

현옥은 변명하듯 말했다.

“어차피 아이를 가지면서 일을 잠시 그만두는 건, 언제나 있어 온 일이었으니까.”

모든 상황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린다.

만약 그때 엄마가 선택해야 했던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어떻게든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면, 표지 안쪽, 아니면 가장 뒤쪽 작은 글씨, 그도 아니면 파일을 만든 사람 서명으로만 남는 작은 존재감으로라도 자신을 고유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남길 수 있었다면. 그러면 그녀는 그 깊은 바닥에서 다시 걸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녀를 규정할 장소와 이름이 집이라는 울타리 밖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녀를 붙잡아 줄 단 하나의 끈이라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면.

그래도 엄마는 분실되었을까.

“유분이 필요하며? 그걸 가져가. 너희 엄마에게 중요한 물건이었는데는 잘 모르겠다면.”

“아빠.”

현옥이 돌아서려던 순간 흠칫했다. 그의 발걸음이 부자연스럽게 멈추어 섰다.

“아빠는 그동안 한 번도 엄마를 찾은 적 없어요? 그럼 접속해 본 것도 아니고, 고작해야 유언을 들어준답시고, 가서 인덱스를 지워 버린 게 다예요?”

정확히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것인지도 이제는 알 수 없었다. 지민은 그냥 누군가를 향해서 화를 내고 싶었다.

“그렇게 엄마를 세계에서 고립시키고, 완전히 죽지도 못한 채로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면서, 미안한 적이 없었어요? 후회한 적도?”

그건 지민 스스로를 향한 질문인지도 모른다.

정적이 흘렀다. 현옥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그의 뒤통수를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 싶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현옥의 낮은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들려왔다.

“지민아. 넌 마인드에 한 번도 접속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지.”

현옥의 목소리가 잠겨 들었다.

“나는 봤어. 그건 너무 진짜 같았다.”

지민은 마른침을 삼켰다.

“죽어서까지 나를 만나는 게 고통일 거라고 생각했어. 단 한 번이었지. 더는 만날 수가 없었다.”

숨이 목에 걸린 듯 넘어가지 않았다.

현옥은 틀렸다. 엄마는 여전히 도서관 어딘가에 있다. 단절된 채로, 아직 접속되지 못한 채로.

엄마를 찾아야 했다.

스무 살의 엄마, 세계 한가운데에 있었을 엄마, 이야기의 화자이자 주인공이었을 엄마, 인덱스를 가진 엄마. 쏟아지는 조명 속에서 춤을 추고, 선과 선 사이에 존재하는, 이름과 목소리와 형상을 가진 엄마.

지민은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는 지민을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도 아이를 가져서 두려웠을까. 그렇지만 사랑하겠다고 결심했을까. 그렇게 지민 엄마라는 이름을 얻은 엄마. 원래의 이름을 잃어버린 엄마. 세계 속에서 분실된 엄마. 그러나 한때는, 누구보다도 선명하고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이 세계에 존재했을 김은하 씨. 지민은 본 적 없는 그녀의 과거를 이제야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를 용서하거나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생각은 없다.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다. 한때 그녀가 누구였던, 지민과 관계 맺었던 은하는 지민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준 적 없는 형편없는 엄마였다. 살아 있는 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다.

다급히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짐을 한가득 들고 있는 지민을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보았다. 지민의 얼굴을 알아본 직원이 다가와 짐을 거들었다. 지민은 곧장 관리자를 찾았다. 관리자는 사서와 함께 안내 창구로 와서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지민이 내민 것은 현옥의 집에서 가져온 책들이었다. 네 권의 종이책은 무거웠다.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종이책이 도서관에 등장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 거렸다. 책의 표지에서 은하가 가졌을 감각과 취향이 보였다.

시냅스 스캐닝으로 특정한 마인드를 찾아내면 보안 카드에 있는 인덱스와 연결되고 화면에 이름이 뜰 것이라고 사서는 설명했다. 한 권의 책을 시냅스 스캐닝하는 데 5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첫 번째 스캐닝에서 지민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름이 정렬되는 것을 보았다.

엄마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초조했다.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민은 확신하고 있었다. 사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다음 책을 스캐닝했다. 화면의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것

을 지켜보며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찾는 분이 직접 쓰신 책임가요?”

“아뇨. 그건 아니지만…….”

두 번째 책을 스캐닝할 때까지도 결과는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 너무 많은 마인드가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점차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보였다. 아직 지민은 실망하지 않았다. 세 번째 책이 끝나고, 네 번째 스캐닝. 주위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지민을 둘러싸고 결과를 기다렸다.

정적. 이따금 침묵을 파고드는 기침 소리. 초조한 시선들.

“아, 나왔어요.”

사서가 손을 내밀어 화면에 뜬 이름을 가리켰다.

수많은 분자 사이에서 지민은 엄마의 이름을 알아보았다.

김은하.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탔다.

[마인드 접속기]는 카드를 인식하고 접속을 시작하게 되어 있었다. 사서가 긴장된 눈빛으로 옆에서 기계를 건네주었다. 지민이 카드를 가져다 대자 파란색 조명이 켜지면서 접근 허가 안내가 떴다. 접속기는 단출한 구성이었다. 대뇌 피질에 신호를 보내는 가상 현실 구현 헤드셋을 착용하고, 기계의 안내에 따라 의자에 앉아 눈을 감는다.

눈을 떴을 때, 지민의 앞에 펼쳐진 장면은 흐릿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민에게서 반쯤 등을 돌린 채로 장벽 너머에 있는 무인가를 주시하고 있었다. 지민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였다. 입가에 팬 주름과 약간은 희끗희끗하게 센 머리가 보였다.

조금씩 주위의 풍경이 선명해졌다. 이제 지민은 이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었다.

지민과 엄마는 작은 서재에 있었다.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가상의 공간이다. 책과 노트, 벽을 채운 그림들, 은하가 지민의 엄마이기 전에 사랑했던 것들, 자신의 삶을 구성했던 것들로 채워진 공간, 지민은 책상 한쪽에 놓여 있는 자신과 유민의 사진을 보았다.

공간 속에서 은하는 어느 때보다도 선명해 보였다. 그녀가 살아 있던 때에 지민은 이따금 엄마가 공기 중에서 사라져 버릴 것 같다고 생각했었다. 문득 떠올린 것은, 엄마와 함께 살던 집에는 엄마만의 방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은하는 고개를 돌려 공간 속으로 들어온 지민을 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해석할 수 없었다. 너무 사람 같다고 하던 사람들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다. 지민은 속으로 되었다. 엄마는 죽었다. 여기에 있는 건 엄마가 아니다. 나는 엄마를 용서할 수도, 용서를 빌 수도 없다. 모든 것은 끝난 뒤에 덧붙여지는 사족이다.

하지만 이대로 떠날 수도 없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거나, 그녀를 용서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은하는 지민이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돌렸다. 이제 은하는 자신의 물건들이 진열된 책장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민은 은하가 자신의 말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인드가 정말로 살아 있는 정신이라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이건 단지 재현된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말한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 그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면, 어느 쪽을 믿고 싶은 걸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진짜로 엄마의 지난 삶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민은 한 발짝 다가섰다. 시선을 비스듬히 피하던 은하가 마침내 지민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지민은 알 수 있었다.

“이제…….”

단 한마디를 전하고 싶어서 그녀를 만나러 왔다.

“엄마를 이해해요.”

정적이 흘렀다. 은하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지민의 손끝을 잡았다.

- 김초엽, 「관내 분실」

1 <보기>를 참고하여 작가가 서술자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 의도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서술하면서도, ‘지민’의 관점에서 내면을 드러내고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민’의 생각과 감정은 잘 드러내는 반면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지민’이 관찰한 행동을 묘사하거나 그 인물의 말을 대사로 보여 주고 있다.

- ① 내면이 제시되지 않은 다른 인물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 ② ‘지민’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어 독자가 ‘지민’만을 옹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 ③ ‘지민’을 둘러싼 다른 인물들과의 갈등을 통해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해
- ④ 다른 인물의 내면을 과감히 생략하여 사건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 ⑤ 독자가 ‘지민’의 감정 변화에 몰입하여 인물의 내면 심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 엄마와 지민의 갈등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민'에게 집착하고 '지민'을 통제하려는 엄마와 그런 엄마에게 답답함을 느끼는 '지민'의 갈등
- ② 현실에 순응한 엄마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엄마가 안타까웠던 '지민'의 갈등
- ③ 산후우울증을 앓던 엄마와 산후우울증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엄마를 돕고 싶었던 '지민'의 갈등
- ④ 늘 과거의 자신을 꿈꿨던 엄마와 그런 엄마에게 답답함을 느낀 '지민'의 갈등
- ⑤ '지민'에게 무관심한 엄마와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지민'의 갈등

3. '마인드 접속기'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 2개)

- ① 아내에 대한 '현옥'의 죄책감을 보여 주는 소재
- ② '현옥'의 아내를 향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소재
- ③ '지민'이 엄마와 있었던 일을 후회하는 원인
- ④ '지민'이 엄마가 도서관에서 실종되었음을 아는 계기
- ⑤ 엄마의 과거를 이해하며 엄마와 화해하는 배경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팀장은 지민을 불러 업무 분장이 끝났다고 통보했다. 새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민의 업무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지민이 맡아 왔던 업무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 주는 일만 남았다. 팀장은 지민이 곧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가질 것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일은 당분간 맡기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았다.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면 가정에 집중해야 하잖아. 그런 걸 다 고려했어. 지민 씨가 일 욕심이 많은 건 알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가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게 아이 정서에 좋다고 생각하거든. 지민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당분간 지민이 맡게 될 업무를 설명해 주면서 지민보다 열살은 많은 팀장이 머쓱한 듯이 웃었다. 나름의 배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지민은 팀장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다.

[중략 부분 줄거리] 지민은 도서관 직원에게서 엄마를 고유하게 특정할 수 있는 실체가 있다면 분실된 엄마의 마인드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는다. 지민은 집에 있는 엄마의

유품 상자를 찾아보았지만, 유의미한 흔적이 남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혼란스러워한다. 결국 지민은 엄마의 흔적을 찾으려고 아빠인 현옥을 만난다. 아빠는 마인드를 등록하는 대신 세상에서 잊히고 싶다는 엄마의 부탁으로 자신이 인덱스를 지웠다는 사실을 밝힌다. 지민은 자신이 엄마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빠에게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며 엄마의 유품을 살펴본다.

책갈피를 들어 올리자 가려져 있던 글씨가 보였다.

표지 디자인. 김은하. 열흘 만에 처음으로 찾은 은하의 이름이었다.

현옥이 말했다.

“너희 엄마가 일하던 곳에서 퍼낸 책이야. 지금은 이런 종이책을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지민이 물었다.

“엄마가 책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너를 낳기 전까지는 했었지.”

인덱스가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엄마의 과거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직장에 다니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그녀의 이름이 쓰인 무언가를 만들었으리라는 생각도. 지민이 알던 엄마는 언제나 집 안에서 무기력한 얼굴을 한 모습이었으니까. 하지만 왜 몰랐을까. 당연한 일이었다. 은하에게도 지민을 낳기 전의 삶이 있었을 것이다. 아이라는 족쇄에 아직 걸리지 않았던 때. 그리고 어쩌면, 엄마의 진짜 삶을 가졌던 때가.

지민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본 현옥이 덧붙였다.

“어차피 출판사는 다 망해 가고 있었어. 미디어 회사들에 모두 통합되어서 책 위주로 출간하는 곳은 사양 산업이 된 지도 한참이었고.”

지민은 멍하니 엄마의 이름을 쳐다보았다.

“뭘, 버티고 있었으면 일 년, 아니면 이 년쯤 더 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하필 그때 출산 휴가를 낸 너희 엄마가 우선 순위에 올랐을 뿐이지. 그게 네 탓은 아니었어.”

그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다. 임신이 아니었다더라도 언젠가 은하는 출판사를 그만두어야 했을 것이다. 지민의 어린 시절 기억에도 종이책들은 대부분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까.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가 종이책 표지를 만드는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버티고 있었다면, 어떻게든 붙잡고 있었다면 그녀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한다. 나는 네 엄마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 그것만 아니었어도.”

현옥은 변명하듯 말했다.

“어차피 아이를 가지면서 일을 잠시 그만두는 건, 언제나 있어 온 일이었으니까.”

모든 상황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린다.

만약 그때 엄마가 선택해야 했던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어떻게든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면, 표지 안쪽, 아니면 가장 뒤쪽 작은 글씨, 그도 아니면 파일을 만든 사람 서명으로만 남는 작은 존재감으로라도 자신을 고유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남길 수 있었다면. 그러면 그녀는 그 깊은 바닥에서 다시 걸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녀를 규정할 장소와 이름이 집이라는 울타리 밖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녀를 붙잡아 줄 단 하나의 끈이라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래도 엄마는 분실되었을까.

“유품이 필요하다며? 그걸 가져가. 너희 엄마에게 중요한 물건이었는데는 잘 모르겠다만.”

“아빠.”

현옥이 돌아서려던 순간 흠칫했다. 그의 발걸음이 부자연스럽게 멈추어 섰다.

“아빠는 그동안 한 번도 엄마를 찾은 적 없어요? 그럼 접속해 본 것도 아니고, 고작해야 유언을 들어준답시고, 가서 인덱스를 지워 버린 게 다예요?”

정확히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것인지도 이제는 알 수 없었다. 지민은 그냥 누군가를 향해서 화를 내고 싶었다.

“그렇게 엄마를 세계에서 고립시키고, 완전히 죽지도 못한 채로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면서, 미안한 적이 없었어요? 후회한 적도?”

그건 지민 스스로를 향한 질문인지도 모른다.

정적이 흘렀다. 현옥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그의 뒤통수를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 싶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현옥의 낮은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들려왔다.

“지민아. 넌 마인드에 한 번도 접속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지.”

현옥의 목소리가 잠겨 들었다.

“나는 봤어. 그건 너무 진짜 같았다.”

지민은 마른침을 삼켰다.

“죽어서까지 나를 만나는 게 고통일 거라고 생각했어. 단 한 번이었지. 더는 만날 수가 없었다.”

숨이 목에 걸린 듯 넘어가지 않았다.

현옥은 틀렸다. 엄마는 여전히 도서관 어딘가에 있다. 단절된 채로, 아직 접속되지 못한 채로.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크게 드러나는 갈등 없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② 긴 호흡의 문장으로 긴장감과 속도감이 느껴진다.
- ③ 미래의 과학 기술에 근거하여 사건이 전개된다.
- ④ 빠른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감각적이고 애상적인 어휘를 통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5 윗글의 ‘마인드 접속기’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옥은 아내의 유언에 따라 인덱스를 지웠고 이는 마인드 분실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 ② 지민은 엄마의 마인드에 접속할 수 없었고 이는 엄마가 도서관에서 실종되었음을 아는 계기가 되었다.
- ③ 현옥은 아내의 마인드에 접속해 얼굴을 봤고 자신을 보면 우울했던 삶이 떠올라 고통스러워할 것이라는 생각에 힘들어했다.
- ④ 지민이 엄마의 마인드에 다시 접속하는 것은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⑤ 현옥은 아내의 마인드 접속을 통해 딸 지민과 함께 아내의 과거를 이해하고 화해하길 바랄 것이다.

6 윗글을 읽고 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민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보고 싶어 엄마의 분실된 마인드를 찾고 싶어.
- ② 현옥은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했던 아내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했고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
- ③ 지민의 팀장은 지민의 바람대로 새로운 업무를 배정해주지 않은 것을 봐서 배려심 있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네.
- ④ 지민은 엄마가 출산과 육아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지 않았다면 행복하게 살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 ⑤ 지민은 엄마를 세계에서 고립시킨 것에 자기 잘못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괴로워하고 있구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엄마가 실종되었다.

그러니까, 죽어서야 실종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생전에도 지민은 엄마가 실종되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①엄마는 너무 찾기 쉬운 사람이었다. 지민은 엄마가 죽기 전 몇 년 동안 다녔던 장소를 한 손에 모두 꼽을 수 있었다. 그랬던 엄마가 이제 와서 언제,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 그 시점도 위치도 지금은 알 수 없다. 지민이 엄마를 찾아온 날은, 엄마가 이 도서관에 기록된 지 벌써 3년이 지난 후였으니까.

살면서 처음으로 찾은 도서관이었다. 둥근 지붕과 야트막한 부지, 건물을 둘러싸고 꾸며진 정원과 연못은 이곳을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기보다는 차라리 오랜 전통을 가진 관광 명소처럼 보이게 했다. 건물에 들어서거나 나오는 사람 중 실제로 책을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도서관이라고 불렀다.

한때 도서관이라고 불렸던 장소 중 일부는 박물관이 되었고 그럴 가치가 없는 곳들은 대부분 전산화되었다. 지금의 도서관은 다른 개념이다. 이곳에 있는 건 책도 논문도, 그 비슷한 자료들도 아니다. 이제 도서관엔 끝없이 늘어섰던 책장 대신 층층이 쌓인 마인드 접속기가 자리하고 있다.

사람들은 추모를 위해 도서관을 찾아온다. 추모의 공간은 점점 죽음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장소로 변해 왔다. 도시 외곽의 거대한 면적을 차지했던 추모 공원에서, 캐비닛에 유골함을 수납한 봉안당으로, 그리고 다시 도서관으로, 도서관을 드나드는 이들 중에 현화하기 위해 꽃을 가져오는 사람은 없다. 대신 도서관에서는 마인드에게 건넬 수 있는 데이터를 판다. 꽃이나 음식, 생전에 고인이 좋아했던 물건들을 모방하는 데이터 조각들이다.

사후 마인드 업로딩이 보편화된 것은 수십 년 전의 일이다. 처음에 사람들은 영혼이 데이터로 이식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곧, 이식된 데이터는 고유의 자아와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반론이 쏟아져 나왔다. 자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이 마인드들을 대상으로 수없이 행해졌다. 오랜 논란 끝에 학계에서는 ②마인드들이 단지 생전의 망자들을 그럴싸하게 재현해 낼 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과거의 기억에 근거하여, 죽은 사람의 반응을 가상하여 보여 줄 뿐이라는 의미다.

그래도 마인드를 살아 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이들은 많았다.

“아빠는 지금 이곳에 없지만, 도서관에 가면 언제든지 아빠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활짝 웃으며 말하는 어린아이가 다큐멘터리에 나왔다. 짧은 광고 영상에서는 한 여자가 사별한 남편과 마인드 접속기를 통해 감동적인 재회를 하는 장면을 보여 주었다.

학계에서 마인드를 어떻게 정의하든, 마인드 도서관은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여전히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상실감은 달라졌다. 타인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 이를테면 ‘그 사람이 지금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말해 주었을까?’, ‘살아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명 기뻐해 줄 텐데…….’ 같은 질문의 답을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3년 전에 죽은 엄마는 이 도서관에 기록되었다. 엄마의 사망 소식 이후에 지민이 우편으로 받은 수십 장의 마인드 설명서에 따르면 그랬다. 하지만 지민은 한 번도 도서관을 찾지 않았다. 죽은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 본 적이 없었다. 만약 엄마가 이렇게 허탈하게 사라져 버릴 줄 알았다면 늦기 전에 이곳을 찾았을 텐데.

집에 오는 길에 도서관 내 분실, 마인드 업로딩 분실, 태고 실종, 온갖 키워드를 넣어 가며 검색해 보았지만 도통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다. 데이터가 지워진 거냐고 물으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도서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 텐데 검색이 안 된다는 말뿐이었다. 하지만 그건 애초에 엄마의 이름이나 인적 사항 중에 무엇 하나라도 제대로 기록되어 있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 아닌가.

사서는 당장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으며 내일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지민은 도서관 측의 착오였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중략)

지민과의 관계를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된 건 어느 시점부터였을까. 지민은 엄마의 집착이 싫었고 자신을 소유물처럼 통제하는 것이 지긋지긋했다. 엄마의 병이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틀어진 두 사람의 관계가 엄마를 더 약하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선행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은하와 지민이 어느 날부터 서로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엄마가 무너진 계기가 산후 우울증이었다는 점에서 지민 자신에게는 일종의 원죄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다. 자신을 낳지 않았다면 엄마는 자신의 삶을 멀쩡하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과 딸인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었다는 생각이 지민 안에서 상충했다.

“미워했었지. 그런데 이제 더 원망해서 얻을 것도 없잖아.”

지민이 확신 없는 태도로 말했다.

지민과 유민 사이에 침묵이 자리 잡았다. 지민은 얼음이 다 녹아 묽어진 홍차를 마시면서 생전의 엄마를 생각했다. 지민이 엄마를 싫어했다는 유민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지민에게는 엄마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대개의 기억은 멍하니 상념에 잠겨 있던 엄마의 뒷모습이었다.

그래도 어떤 기억은 유독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날 문을 열

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넘어진 보조 탁자였다. 전등이 침대 위로 쓰러져 있었고, 알약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까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민을 보고는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

“송지민, 너도 이제 네 아빠처럼 나를 무시하는 거니? 전화는 왜 안 받아?”

지민은 뭐라고 말해야 엄마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지민은 그냥 친구들과 있다가 늦게 들어왔을 뿐이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지적하더라도 신경질적인 비난만이 돌아올 것이다.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단지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뿐인데, 지민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전화를 받으면 엄마는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지민은 다시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어떻게 그놈의 유전자는 어디 가질 않나. 나는 이렇게 엄마 노릇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새끼라는 녀석들은 어떻게 제 아버지 하는 것처럼…….”

지민은 내던지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말했다.

“엄마, 왜 집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 제발 입원해. 입원 안 하겠다고 고집부렸던 건 엄마잖아. 이게 무슨 엄마 노릇이야?”

엄마의 흔들리던 시선이 지민을 향했다.

“난 엄마가 해 주는 밥이나 빨래, 설거지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떨어져 있고 싶어. 제발.”

빈정거리는 지민의 앞에서 엄마의 표정이 변했다. 엄마가 그렇게 상처받은 표정을 지을 때마다 지민은 통증 같은 슬픔을 느꼈다.

엄마는 언제나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었다. 그럴 거면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지. 아빠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지 말지. 우리가 한 시간만 전화를 받지 않아도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냥 떨어져 살지. ③멀쩡할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가 돌아서는 순간 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말하지만 말 것이지. 서로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일찍부터 서로를 체념하고 살았더라면 더 편했을 텐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엄마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왜 몰라주는 거니?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엄마한테는 나 말고 아무것도 없어? 난 너무 힘들어. 이럴 바에는 그 엄마 노릇 좀 그만하면 안 돼?”

엄마의 표정을 마주 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지민은 엄마와 자신 사이에 남아 있던 약한 끈마저 잘라 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 대화는 지민이 기억하는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결국 병원에 들어갔다. 지민은 대학을 도중에 그만두고 한국을 떠났다.

지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자 유민이 손가락으로 톡톡 책상을 쳐서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누나도 참 이상하다. 난 그냥 잊으려고 할 것 같은데.”

지민은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엄마의 쓸쓸한 표정이 계속 기억 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동시에 지민은 배 속에서 심장이 뛰고 있을 아이를 생각했다. 아직 지민이 어떤 애투함도 느끼지 않지만, 언젠가는 사랑해야 하는 한 아이를. 엄마는 지민을 사랑했던 것이 맞을까. 그건 사랑이었을까. 사랑할 수 없는 관계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엄마와 지민은 더 불행해진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야 엄마의 마인드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엄마의 분실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지민을 당혹스럽게 한다는 사실이었다.

(중략)

책갈피를 들어 올리자 가려져 있던 글씨가 보였다.

표지 디자인. 김은하. 열흘 만에 처음으로 찾은 은하의 이름이었다.

현옥이 말했다.

“너희 엄마가 일하던 곳에서 퍼낸 책이야. 지금은 이런 종이책을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지민이 물었다.

“엄마가 책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너를 낳기 전까지는 했었지.”

③인덱스가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엄마의 과거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직장에 다니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그녀의 이름이 쓰인 무언가를 만들었으리라는 생각도. 지민이 알던 엄마는 언제나 집 안에서 무기력한 얼굴을 한 모습이었으니까. 하지만 왜 몰랐을까. 당연한 일이었다. 은하에게도 지민을 낳기 전의 삶이 있었을 것이다. 아이라는 족쇄에 아직 걸리지 않았던 때. 그리고 어쩌면, 엄마의 진짜 삶을 가졌던 때가.

지민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본 현옥이 덧붙였다.

“어차피 출판사는 다 망해 가고 있었어. 미디어 회사들애 모두 통합되어서 책 위주로 출간하는 곳은 사양 산업이 된 지도 한참이었고.”

지민은 멍하니 엄마의 이름을 쳐다보았다.

“뭐, 버티고 있었으면 일 년, 아니면 이 년쯤 더 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하필 그때 출산 휴가를 낸 너희 엄마가 우선 순위애 올랐을 뿐이지. 그게 네 닻은 아니었어.”

그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다. 임신이 아니었다라도 언젠가 은하는 출판사를 그만두어야 했을 것이다. 지민의 어린 시절 기억에도 종이책들은 대부분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까.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가 종이책 표지를 만드는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버티고 있었다면, 어떻게든 붙잡고 있었다면 그녀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한다. 나는 네 엄마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 그것만 아니어도.”

현옥은 변명하듯 말했다.

“어차피 아이를 가지면서 일을 잠시 그만두는 건, 언제나 있어 온 일이었으니까.”

모든 상황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린다.

만약 그때 엄마가 선택해야 했던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어떻게든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면, 표지 안쪽, 아니면 가장 뒤쪽 작은 글씨, 그도 아니면 파일을 만든 사람 서명으로만 남는 작은 존재감으로라도 자신을 고유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남길 수 있었다면. 그러면 그녀는 그 깊은 바닥에서 다시 걸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녀를 규정할 장소와 이름이 집이라는 울타리 밖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녀를 붙잡아 줄 단 하나의 끈이라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면.

그래도 엄마는 분실되었을까.

“유품이 필요하다며? 그걸 가져가. 너희 엄마에게 중요한 물건이었는데는 잘 모르겠다만.”

“아빠.”

현옥이 돌아서려던 순간 흠칫했다. 그의 발걸음이 부자연스럽게 멈추어 섰다.

“아빠는 그동안 한 번도 엄마를 찾은 적 없어요? 그럼 접속해 본 것도 아니고, 고작해야 유언을 들어준답시고, 가서 인덱스를 지워 버린 게 다예요?”

정확히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것인지도 이제는 알 수 없었다. 지민은 그냥 누군가를 향해서 화를 내고 싶었다.

“그렇게 엄마를 세계에서 고립시키고, 완전히 죽지도 못한 채로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면서, 미안한 적이 없었어요? 후회한 적도?”

그건 지민 스스로를 향한 질문인지도 모른다.

정적이 흘렀다. 현옥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그의 뒤통수를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 싶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현옥의 낮은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들려왔다.

“지민아. 넌 마인드에 한 번도 접속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

지.”

현옥의 목소리가 잠겨 들었다.

“나는 봤어. 그건 너무 진짜 같았다.”

지민은 마른침을 삼켰다.

“죽어서까지 나를 만나는 게 고통일 거라고 생각했어. 단 한 번이었지. 더는 만날 수가 없었다.”

숨이 목에 걸린 듯 넘어가지 않았다.

현옥은 틀렸다. 엄마는 여전히 도서관 어딘가에 있다. 단절된 채로, 아직 접속되지 못한 채로.

엄마를 찾아야 했다.

스무 살의 엄마, 세계 한가운데에 있었을 엄마, 이야기의 화자이자 주인공이었을 엄마, 인덱스를 가진 엄마. 쏟아지는 조명 속에서 춤을 추고, 선과 선 사이에 존재하는, 이름과 목소리와 형상을 가진 엄마.

지민은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는 지민을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도 아이를 가져서 두려웠을까. 그렇지만 사랑하겠다고 결심했을까. 그렇게 지민 엄마라는 이름을 얻은 엄마. 원래의 이름을 잃어버린 엄마. 세계 속에서 분실된 엄마. 그러나 한때는, 누구보다도 선명하고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이 세계에 존재했을 김은하 씨. 지민은 본 적 없는 그녀의 과거를 이제야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를 용서하거나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생각은 없다.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다. 한때 그녀가 누구였건, 지민과 관계 맺었던 은하는 지민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준 적 없는 형편없는 엄마였다. 살아 있는 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다.

다급히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짐을 한가득 들고 있는 지민을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보았다. 지민의 얼굴을 알아본 직원이 다가와 짐을 거들었다. 지민은 곧장 관리자를 찾았다. 관리자는 사서와 함께 안내 창구로 와서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지민이 내민 것은 현옥의 집에서 가져온 책들이었다. 네 권의 종이책은 무거웠다.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종이책이 도서관에 등장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 거렸다. 책의 표지에서 은하가 가졌을 감각과 취향이 보였다.

시냅스 스캐닝으로 특정한 마인드를 찾아내면 보안 카드에 있는 인덱스와 연결되고 화면에 이름이 뜰 것이라고 사서는 설명했다. 한 권의 책을 시냅스 스캐닝하는 데 5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첫 번째 스캐닝에서 지민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름이 정렬되는 것을 보았다.

엄마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초조했다.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민은 확신하고 있었다. 사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다음 책을 스캐닝했다. 화면의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찾는 분이 직접 쓰신 책임가요?”

“아뇨. 그건 아니지만…….”

두 번째 책을 스캐닝할 때까지도 결과는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 너무 많은 마인드가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점차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보였다. 아직 지민은 실망하지 않았다. 세 번째 책이 끝나고, 네 번째 스캐닝. 주위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지민을 둘러싸고 결과를 기다렸다.

정적. 이따금 침묵을 파고드는 기침 소리. 초조한 시선들.

“아, 나왔어요.”

사서가 손을 내밀어 화면에 뜬 이름을 가리켰다.

수많은 분자 사이에서 지민은 엄마의 이름을 알아보았다.

김은하.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땀다.

마인드 접속기는 카드를 인식하고 접속을 시작하게 되어 있었다. 사서가 긴장된 눈빛으로 옆에서 기계를 건네주었다. 지민이 카드를 가져다 대자 파란색 조명이 켜지면서 접근 허가 안내가 떴다. 접속기는 단출한 구성이었다. 대뇌 피질에 신호를 보내는 가상 현실 구현 헤드셋을 착용하고, 기계의 안내에 따라 의자에 앉아 눈을 감는다.

눈을 떴을 때, 지민의 앞에 펼쳐진 장면은 흐릿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민에게서 반쯤 등을 들린 채로 장벽 너머에 있는 무인가를 주시하고 있었다. 지민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였다. 입가에 팬 주름과 약간은 희끗희끗하게 센 머리가 보였다.

조금씩 주위의 풍경이 선명해졌다. 이제 지민은 이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었다.

지민과 엄마는 작은 서재에 있었다.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가상의 공간이다. 책과 노트, 벽을 채운 그림들, 은하가 지민의 엄마이기 전에 사랑했던 것들, 자신의 삶을 구성했던 것들로 채워진 공간, 지민은 책상 한쪽에 놓여 있는 자신과 유민의 사진을 보았다.

공간 속에서 은하는 어느 때보다도 선명해 보였다. 그녀가 살아 있던 때에 지민은 이따금 엄마가 공기 중에서 사라져 버릴 것 같다고 생각했었다. 문득 떠올린 것은, 엄마와 함께 살던 집에는 엄마만의 방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은하는 고개를 돌려 공간 속으로 들어온 지민을 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해석할 수 없었다. 너무 사람 같다고 하던 사람들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다. 지민은 속으로 되었다. 엄마는 죽었다. 여기에 있는 건 엄마가 아니다. 나는 엄마를 용서할 수도, 용서를 빌 수도 없다. 모든 것은 끝난 뒤에 덧붙여지는 사족이다.

하지만 이대로 떠날 수도 없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거나, 그녀를 용서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은하는 지민이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돌렸다. 이제 은하는 자신의 물건들이 진열된 책장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민은 은하가 자신의 말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인드가 정말로 살아 있는 정신이라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이건 단지 재현된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말한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 그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면, 어느 쪽을 믿고 싶은 걸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진짜로 엄마의 지난 삶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민은 한 발짝 다가섰다. 시선을 비스듬히 피하던 은하가 마침내 지민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지민은 알 수 있었다.

“이제…….”

단 한마디를 전하고 싶어서 그녀를 만나러 왔다.

“엄마를 이해해요.”

정적이 흘렀다. 은하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지민의 손끝을 잡았다.

- 김초엽, 「관내 분실」

7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 간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장면 전환을 통해 시간의 이동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해 인물들의 내면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 ④ 문장을 길게 수식하지 않고 짧게 끝내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 ⑤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해 공간의 변화된 의미를 설정하고 있다.

8 ㉠-㉣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엄마가 하루의 정해진 일정대로 살아갔음을 의미한다.
- ② ㉡: 마인드는 망자의 신체는 재현할 수 없지만 영혼은 재현할 수 있다.
- ③ ㉢: 집에만 갇혀 있던 엄마의 답답함이 드러나는 행동이다.
- ④ ㉣: 엄마가 디자인한 표지의 책이 인덱스가 될 수 있다.
- ⑤ ㉤: 그동안 엄마를 찾지 않아 미안하다는 말이다.

9 윗글을 바르게 감상한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소원: 과거 엄마와 갈등을 하던 '지민'은 엄마에게 모질게 말했던 것에 아픔을 느끼지만 이내 자신의 마음 속 깊은 곳의 애기를 다 한 것 같아 후련함을 느끼고 있어. 그것이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일 줄도 모르고.

지원: 현재 엄마의 마인드 분실 소식을 들었지만 이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는 '지민'과 마찬가지로 동생 '유민'은 엄마의 행방에는 딱히 관심이 없어 보여.

주원: '현욱'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사후 마인드로라도 자신을 만나는 게 고통일 것 같아 인덱스를 지운 게 아닐까?

형원: '지민'의 회상 속 가족들에게 집착하고 가족들을 통제하려 했던 엄마와 달리 과거의 '은하'는 자신의 일을 성취하며 살았어. '지민'은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

- | | |
|----------|----------|
| ① 소원, 지원 | ② 소원, 주원 |
| ③ 지원, 주원 | ④ 지원, 형원 |
| ⑤ 주원, 형원 | |

10 <보기>를 참고할 때 이 소설에 나타난 과학 소설로서의 특성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들어 과학 소설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인기 있는 과학 소설이 늘고 있고 독자들도 과학 소설에 더 쉽게 접근하고 있다. 지금 시기에 왜 이렇게 과학 소설이 주목받는 것일까?

과학 소설 전문 출판사의 한 편집자는 과학 소설의 세계를 실제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에서 과학 소설이 부흥한 시기에도 우주선이 달에 다녀온 이후와 겹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6년에 한 바둑 기사와 인공지능이 펼친 바둑 대결을 지켜보던 대중이 큰 충격을 받은 이후, 과학 소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시대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다니거나 통신 장비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상황 등은 과학 소설에서 보던 장면들이다. 그런데 이를 현실에서 직접 경험하다 보니 과학 소설에 관심이 커진 것이다.

과학 소설은 과학 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과 운명을 같이 한다. 과학 기술의 영향으로 인류의 삶이 나아졌지만, 기후 위기나 감염병의 빠른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과학 소설은 이러한 과학 기술의 양면에 주목하면서, 과학 기술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고민한다. 그런 점에서 과학 소설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 임지영, 「‘과학 소설’ 전성시대. 왜 지금 에스에프(SF)일까?」 (『시사인』, 2020. 11.25.)

- ① 과학 기술이 주요 소재로 제시되었다.
- ② 과학 기술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과학 기술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 ④ 과학 기술이 사용되는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 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해설] 윗글은 '지민'의 관점에서 '지민'의 생각과 감정을 잘 드러낸다. 이를 읽은 독자들은 '지민'의 입장에서 '지민'의 감정 변화를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다. ① 윗글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은 '지민'의 관찰 또는 인물의 대사를 통해 내면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민에게 몰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일 뿐 궁극증을 유발하기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다. ② '지민'의 내면 심리를 증명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지민'만을 옹호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지민'의 내면을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유도하고 있을 뿐 사건의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다른 인물의 내면은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정답] ①

[해설] 엄마는 산후 우울증을 앓은 후 지민에게 집착하고 지민을 통제하려 한다. 지민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며 답답함을 느껴 갈등하게 된다. ② 출산 후 엄마가 무기력하게 살아 간 건 맞지만 '지민'이 그런 엄마를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엄마가 산후우울증을 앓은 것은 맞지만 '지민'이 그런 엄마를 돕고 싶어 갈등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지민'이 엄마를 답답해한 것은 맞지만, 엄마는 과거의 진짜 자신을 잃고 집에서 고립된 채 생활했지만 과거의 자신을 꿈꿔 '지민'과 갈등하지 않는다. ⑤ '지민'이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생각해 엄마와 갈등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정답] ②, ③

[해설] '현욱'은 아내의 유언에 따라 아내의 인덱스를 지운다. 이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②). '지민'은 엄마의 지난 삶을 떠올리며 엄마의 삶을 이해하고 엄마와 화해한다. 하지만 엄마와 갈등했던 과거의 일을 회회한다고 볼 수는 없다(③). ① '현욱'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한 번밖에 마인드 접속기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했다. ④ '지민'이 마인드 접속기를 통해 '은하'의 마인드로 접속을 시도했으나 '은하'의 인덱스가 지워져 엄마의 마인드에 접속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통해 지민은 엄마가 도서관에서 실종되었음을 알게 된다. ⑤ 엄마가 만든 책으로 엄마의 마인드를 찾은 '지민'은 엄마를 이해한다고 말하며 엄마와 화해하게 된다.

4) [정답] ③

[해설] 고인의 마인드에 접속해서 대화를 나눈다는 부분에서 미래의 과학 기술에 근거하여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지민과 엄마의 갈등에 대한 내용이 두드러진다. ② 짧은 문장으로 글의 긴장감과 속도감이 느껴진다. ④ 장면이 빠르게 전환되지 않고 각 장면에서 인물의 심리와 생각이 자세히 전달된다. ⑤ 감각적이고 애상적인 어휘는 나오지 않는다.

5) [정답] ⑤

[해설] 현욱이 아내의 마인드 접속을 통해 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

되길 바라는지 알 수 없다. ① 현욱은 아내의 유언에 따라 인덱스를 지웠고 지민의 엄마는 도서관에서 실종되었다. ② 지민은 엄마의 마인드를 찾을 수 없었고 도서관에서 실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③ 현욱은 아내의 마인드에 접속해 아내의 얼굴을 보면 생전의 삶이 떠올라 고통스러워할까 봐 한 번만 봤다고 했다. ④ 지민이 엄마의 마인드에 접속하게 되면 엄마의 삶과 마음을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을 것이다.

6) [정답] ③

[해설] 지민은 새로운 업무를 배정받길 바랬지만 지민의 팀장은 지민의 임신으로 기존 업무를 배정했다. ① 지민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 엄마의 마인드를 찾고 있다. ② 현욱은 아내의 상황을 돌보아 주지 못했기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 아내의 마인드를 한 번밖에 보지 않았다. ④ 지민은 엄마가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⑤ 지민은 엄마가 출산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므로 그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7) [정답] ③

[해설] 윗글은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해 '지민'의 내면을 자세히 드러내는 반면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지민'이 관찰한 행동을 묘사하거나 그 인물의 말을 대사로 보여 주고 있다. ① 엄마와 '지민'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갔던 엄마의 삶에 대한 공감과 이해'라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② '지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자 유민이 손가락으로 툭툭 책상을 쳐서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에서 장면의 전환이 드러난다. 또한 이를 통해 '지민'이 엄마와의 일을 회상하다가 현실로 돌아오므로 시간의 이동이 나타난다. ④ '엄마가 실종되었다'와 같은 짧은 문장을 통해 사건전개의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⑤ 윗글은 미래의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책을 읽는 공간이었던 '도서관'을 추모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8) [정답] ④

[해설] ㉠ 엄마가 디자인한 표지의 책이 엄마를 고유하게 특정할 수 있는 인덱스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 엄마가 밖을 잘 나가지 않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② ㉡ 마인드는 영혼이 데이터로 이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유의 자아와 의식을 가지지 않음을 나타낸다. ③ ㉢ 산후 우울증에 시달려 불안정한 엄마의 행동을 의미한다. ⑤ ㉤ 엄마의 삶을 이해하게 된 후 하게 된 말로, 마지막 장면의 "엄마를 이해해요."라는 말이다.

9) [정답] ⑤

[해설] 주원: '현욱'은 아내가 산후 우울증을 겪으며 무기력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남편으로서 아내의 상황을 헤아리고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욱'은 사후 마인드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신을 만나면 아내가 고통스러워 할 것 같아 인덱스를 지웠다. 형원: 산후 우울증을 앓아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가족들에게 집착하고 가족을 통제하려 했던 엄마는 과거에는 책 표지를 편집하여 자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던 '은하'였다. 소원: '지민'은 엄마에게 모질게 말한 후 엄마의 슬픈 표정을 보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을 뿐 후련함을 느끼지 않는다. 지원: '지민'은 엄마의 마인드 분실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해 생각하며 엄마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 반면 '유민'은 엄마의 행방에는 관심이 없고 '지민'이 이제 와서 엄마를 만나려 하는 이유를 더 궁금해 하고 있다.

10) [정답] ⑤

[해설] 이 작품의 문제 상황은 엄마의 마인드가 관내분실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된 것은 '현욱'이 직접 지운 것이다. 따라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①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과학 기술이 주요 소재로 제시되었다. ② '마인드 업로딩'을 화해한 '지민'과 '엄마'를 통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갔던 엄마의 삶에 대한 공감과 이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③ '마인드 업로딩'을 통해 '지민'은 "엄마를 이해해요"라 말하며 엄마와 화해하고 있다. ④ 이 작품은 '마인드 업로딩' 기술이 상용화 된 미래의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극 문학]

신연식 각본, 「동주」

시나리오를 읽을 때는 인물과 장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자!

22개정 교과서 수록 | 고1 미래엔(신유식), 고2 문학 천재(정호웅)

EBS 수능특강 수록 | 2026년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에 의한 표시

1) 제작연월일 : 2025.01.15

2) 제작자 : 교육지대㈜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외에도「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학사 개관

• 시대 특징 (1990년대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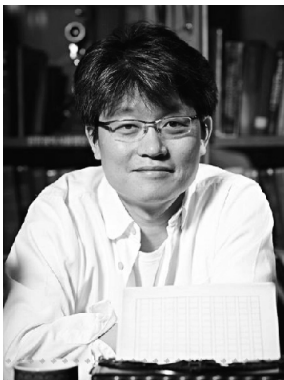
- 1) 신자유주의가 자리 잡고 시민 사회가 성장하여 1인당 국민 소득이 크게 상승함.
- 2) 1997년 외환 부족으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 자금을 지원받음.
- 3)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이 결성되어 사회 개혁과 노동자 계층의 정치 세력화에 힘씀.
- 4)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자리면서 환경 운동 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짐.
- 5) 1990년대 드라마로부터 시작하여 K-POP까지 한류가 세계로 진출함.

• 문학 경향

현대시 다원화, 생태주의 시, 사실주의적 내용 탈피, 페미니즘, 다문화 문학

- 1) 전통적 서정시, 리얼리즘, 모더니즘 간의 분류가 유연화 되면서 한국 현대 시단이 다원화 양상을 보임.
- 2) 서구에서 주목 받았던 생태주의 시가 환경 오염의 실태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관심을 받게 됨.
- 3) 자아와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개인의 욕망과 일상이 부각되는 소설이 중심으로 성장함.
- 5) 여성 작가들이 대거 등장하며, 가정이나 가족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체성을 찾는 페미니즘 문학이 등장함.
- 6) 역사적 사건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현대 사회의 모순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설이 이어짐.
- 7) 외국인 문제를 다룬 작품이 꾸준히 쓰이고 소비되며, 연민의 시각만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위한 고민이 확산됨.
- 8) 인터넷 문학과 독자들이 쌍방으로 소통하며 문학성을 인정받는 작품들이 많아짐.

작가 소개



• 신연식 (1976 ~)

2003년 영화 <피아노 레슨>으로 데뷔한 각본가이자 영화 감독. 영화 비전공자로 영화에 뛰어든 독특한 이력을 가진 그는 영화 <좋은 배우>가 2005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며 주목받았다. 그 후 <페어 러브>, <배우는 배우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거미집> 등 다수의 작품의 각본과 감독, 제작을 맡았고, <동주>를 통해 다수의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수상하였다.

• 주요 작품 : 시인 윤동주와 독립운동가 송몽규의 일대기를 통해 깊은 울림을 전한 ★《동주》

어린 아이의 시선을 통해 참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늘 지기만 하던 팀의 단 1승을 위한 고군분투와 팀워크의 회복과정을 보여준 《1승》
 검열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걸작을 만들고 싶은 열망을 표현한 《거미집》



작품 미리보기

• 개관 정리

갈래	시나리오		
성격	사실적, 교훈적, 일대기적		
배경	• 시간적 배경 : 일제 강점기 말 (1943년 및 그 이전) • 공간적 배경 : 경성 옥인동 하숙집, 후쿠오카 감옥, 용정		
제재	시인 윤동주와 독립운동가 송몽규의 삶		
주제	일제 강점기 속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살다 간 윤동주와 송몽규의 삶		
특징	1)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전개함. 2) 흑백 화면을 사용하여 관객의 몰입도를 높임 3) 윤동주의 시를 내레이션 형식으로 삽입하여 시의 내용과 관련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전달함 4) 다양한 시나리오 용어를 사용함. 5)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윤동주와 송몽규의 대비를 통해 관객의 성찰을 유발함.		
구성	- (일부 주요 장면 한정) 역순행적 구성('현재-과거-현재'가 교차하는 방식)		
	장면 번호	시간, 공간	중심 내용
	S# 33~35	과거, 옥인동 하숙집	동주와 몽규가 문예지에 실을 시와 산문을 두고 갈등하자 여진은 동주에게 몽규가 이념에 사로잡혀 동주의 시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 줌
	S# 36, 38	현재, 후쿠오카 형무소	형무소 창살 사이로 밤하늘을 보며 시 「별 헤는 밤」을 독백하듯 읊고 있음. 취조실로 끌려간 동주는 특고에게 위조 자백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음.
	S# 39, 40	과거, 옥인동 하숙집	몽규는 짐을 싸서 임시 정부가 있는 중경으로 떠나고, 동주는 정지용 선생을 만나 이야기하던 중 일본으로 유학갈 것을 권유 받음
	S# 97	현재, 후쿠오카 형무소	특고가 내민 서류에 몽규는 서명을 하지만 동주는 위조 자백서의 내용처럼 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서명을 거부함.
	S# 100~103	현재, 후쿠오카 형무소	동주의 아버지와 몽규의 아버지는 면회실에서 몽규에게 동주가 죽었고, 자신도 오래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되고, 얼마 후 화장터에서 두 아버지는 동주와 몽규의 유골을 수습함
	S# 104	만주 용정	두 아버지는 용정의 동주와 몽주의 유골함을 들고 용정으로 돌아옴

• 주요 인물

동주	차분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문학의 순수성과 예술성을 중시하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함. 위조 자백서의 내용처럼 살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 자백서에 서명을 하지 못함.
몽규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경찰에 체포되는 등 신념대로 거침없이 행동함. 독립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위조 자백서의 내용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백서에 서명을 함.

• 전체 줄거리 요약

동주와 몽규는 사촌지간으로 만주 명동촌에서 나고 자랐다. 시인을 꿈꿨으나 등단하지 못한 동주와 달리 몽규는 신춘문예에 콩트가 당선되어 등단하게 되고, 마을 어른들의 자랑이 된다. 이념과 정치에 관심이 많은 몽규는 독립운동 단체를 찾아가지만, 고향에 돌아오게 되고 동주는 몽규에게 연희전문학교로 진학할 것을 제안하여 함께 경성으로 유학을 떠난다. 문예지를 함께 만드는 등의 활동을 하며 함께 학교를 다니던 중, 몽규는 임시 정부로 떠나고 그곳에서 활동하다 체포된다. 정지용 선생에게 일본 유학을 떠날 것을 권유받은 동주는 풀려난 몽규와 함께 일본 유학을 가게 된다. 일본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을 모아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몽규는 동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는다. 몽규는 비밀 회합 장소가 발각되어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고, 영어로 번역한 시집을 발간하려던 동주 또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된다. 둘은 취조실에서 위조된 자백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게 된다. 몽규는 위조된 자백서의 내용이 사실이기를 바라며 자백서에 서명을 하지만, 동주는 자신이 시대 현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끄러움으로 인해 자백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 감옥에서 매일 알 수 없는 주사를 맞던 두 사람은 차례로 숨을 거두게 되고, 두 사람 모두 고향인 용정에 묻힌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

Point 1 극 갈래의 형상화 방법 - 시나리오 용어

↑ 장면 번호 : 시나리오상의 장면에 차례를 나타내거나 식별하기 위해 붙이는 숫자

S#33 옥인동 하숙집 (밤, 회상)

↳ 공간적 배경 ↳ 시간적 배경

하숙방 창 위로 별이 반짝인다. 밤하늘에서 하숙집 지붕 창문으로 점점 화면이 내려오며 팬 다운(pan down).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고 원고들을 교정하는 처중, 동주, 여진, 몽규.

처중 : 《원고를 보며》 시는 동주 거 말고는 실을 만한 게 없다. <중략>

↳ 지시문 ↳ 대사

S#34 골목길 (밤, 회상)

프레임 인(frame in), 밤길을 나란히 걸어오는 동주와 여진 <중략>

↳ 영화에서 촬영 대상이 화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 narration. 영화, 방송극, 연극 따위에서,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장면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나 줄거리를 장외에서 해설하는 일. 또는 그런 해설 내레이션(동주 목소리) :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히 멀듯이. <중략>

↳ 동주의 목소리를 사용해 장면에 어울리는 운동주의 시 <별 헤는 밤>을 삽입하여 동주의 정서와 관객의 정서를 일치시킴

↑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인물의 극적 관계나 극적 정황의 장면을 급격하게 번갈아가며 보여주는 편집 방법

S#97 취조실 (동주와 몽규 교차 편집)

↳ 일제의 위선과 폭력성을 비판하고, 동주와 몽규가 모두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였음을 보여줌.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특고 형사. 속기사들이 수기를 한다. 책상에는 몽규가 앉아 있다. 서류를 몽규 앞에 던지는 특고. 특고가 던진 서류 클로즈업(Close-Up). <중략>

↳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등장하는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 것.

S#102 독방 (밤) <중략>

인서트(Insert), 형무소 창살 사이로 밤하늘이 보인다. 별이 반짝인다.

↳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장면과 장면 사이에 다른 장면이나 글자 또는 사진을 삽입하는 것.

Point 2 동주와 몽규의 갈등 - 문학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S# 33 옥인동 하숙집 (밤, 회상)

작가의 사상이나 행동을 근거로 작품을 평가함. 일제를 옹호하는 세력에 대한 반감을 드러냄. ↑

몽규 : (원고를 던지며) 아직도 이광수 흉내를 내는 글을 쓰니……. 이광수, 최남선 같은 변절자들 따라 한 글들은 다 던져 버려.

동주 : 너 이광수 선생 작품만 봤었잖아?

몽규 : 어렸을 때 얘기지.

동주 : 지금도 마찬가지지. 관습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단정 짓는 건.

↳ 몽규에 대한 동주의 평가. 동주는 몽규가 글을 관습과 이념을 바탕으로 평가한다고 비판함.

이상한 분위기에 긴장하는 친구들.

몽규는 독립 운동에 대한 신념과 사상을 표현할 문예지를 만들고자 함. 따라서 문예지에 시보다는 산문을 실는 것이 낫다고 판단함. ↑

몽규 : 관습과 이념을 타파하자고 하는 일이야. 시를 빼자 그래서? (한숨을 쉬며) 나는 이 문예지를 하려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 시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 동주가 생각하는 시의 힘. 진실을 담은 시를 통해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믿음.

동주 : 시도 자기 생각을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사람 마음속에 살아 있는 진실을 드러내야 문학은 온전하게 힘을 내는 거고, 그런 힘이 하나하나 모여야 세상이 변하는 거라고.

몽규 : 그런 힘이 어떻게 모이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가 없어서 문학으로 숨는 거밖에 더 돼?

↳ 몽규는 문학을 잘못된 관습과 이념을 타파하는 도구로 여기며, 정치 투쟁을 중시함.

↑ 문학을 낙관한 감상주의로 보는 몽규의 시각에 대한 간접적 비판

동주 : 문학을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문학을 이용해서 예술을 팔아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누가 그렇게 변화시킨 적이 있는데? 민족주의니 애국주의니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 모든 가치를 팔아먹는 게 관습을 타파하는 일이야? 그거야말로 시대의 조류에 몸을 숨기는 썩어빠진 관습이지!

↳ 동주는 문학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을 반대하며 문학의 예술성을 추구함.

Point 3 서류에 서명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동주와 몽규

S# 97 취조실 (동주와 몽규 교차 편집) <중략>

특고 : 너희를 죽이는 일이 뭐가 어려운가? 대일본 제국은 법치 국가로 체제를 위협하는 너희 같은 자들에게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그 죄를 묻는다. 문명국과 비문명국의 차이지.

동주 : 전쟁에서 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 일본이 패전할 것을 대비하여 허위로 죄명을 문서로 남기기 위해 조작된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음을 알아챈.

특고가 정곡을 찔린 듯 말이 없어진다. 여유롭게 특고를 바라보는 몽규.

몽규 : 너희들이 허울 좋은 명분을 항상 내세우는 이유가 뭔지 아나? 열등감 때문이지. 비열한 욕망을 드러낼 자신이 없어서 명분과 절차에 기대는 거지. <중략>

↳ 일본 제국주의의 허울을 간파하고 있음.

서류를 보는 몽규.

특고 : 명분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라는 거다.

몽규 : 그래? 사실로 만들어 줄까? 얼마든지 해 주지.

특고 :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당당하게 서류에 서명해라.

자신 앞에 놓인 서류를 살피며 서명을 하는 몽규.

↳ 몽규는 서류의 내용에 나온 것과 같은 독립 운동을 자신이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 서류에 서명을 함.

몽규 : ‘재일 조선인 유학생들을 규합하여 사상 교육을 시키고…….’ 내가 제대로 못 시켜서 부끄럽다. (서명을 하며) 내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서류의 페이지를 넘기며 항목마다 서명을 하는 몽규.

몽규 : (이어서 읽으며) ‘비밀리에 조선어 문학과 서적을 유통시키며…….’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못해서 한스럽다. ‘징집령을 이용하여 황군 내 조선인 반군 조직을 결성하고 활용할 군사적 계획을 지시했으며.’ (눈물을 글썽이며) 아, 이게 정말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내가 정말 그렇게 못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서명을 한다. 부끄러워서……. <중략>

↳ 몽규가 자백서에 서명을 하는 이유. 위조 자백서의 내용이 차라리 사실이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서명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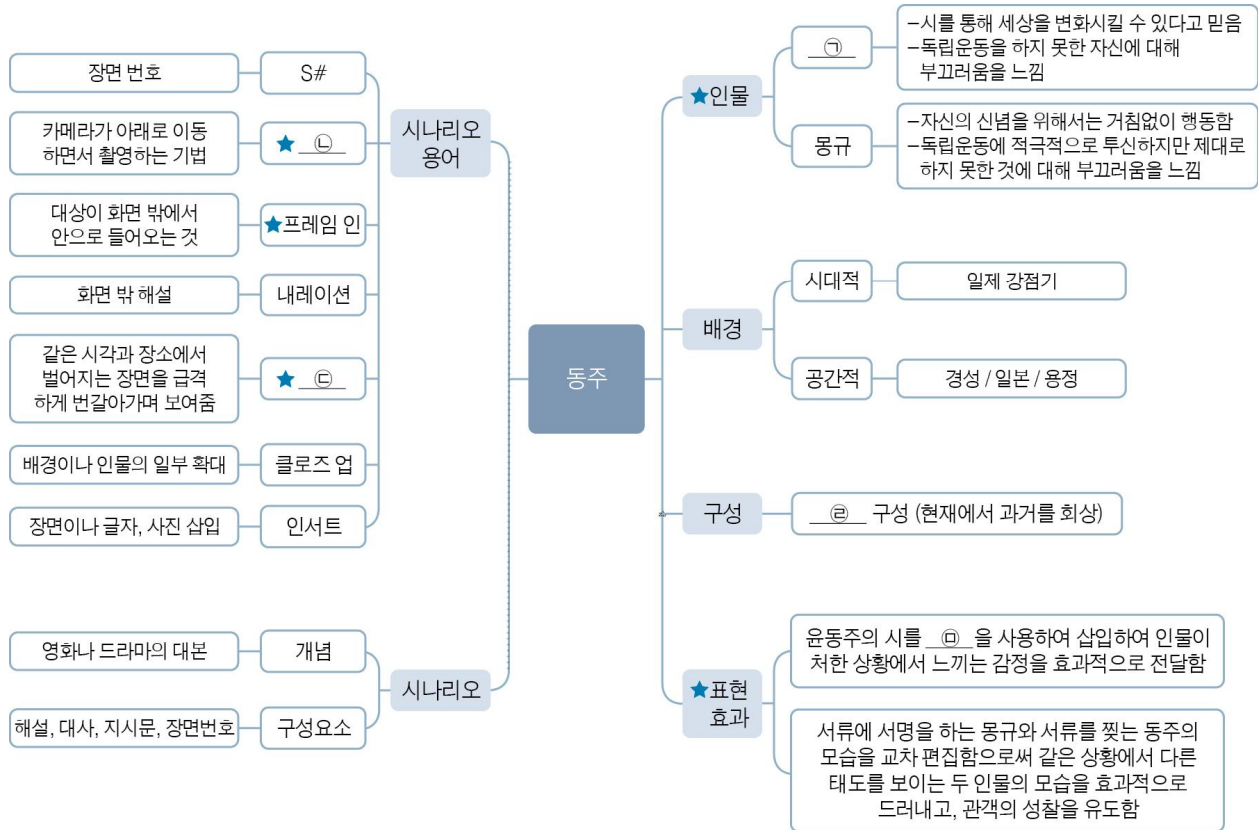
↳ 동주가 자백서에 서명하지 않는 이유.

동주 :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말을 들으니 정말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시를 쓰길 바라고 시인이 되길 원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앞장서지 못하고 떠나서지만 한 게 또 너무 부끄럽고,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하겠습니다.

↳ 일제에 대한 저항을 현실에서 실천해야 했는데 시인이 되기를 원하고 독립운동에 제대로 앞장서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음.

작품 정리

작품 구조도 완성하기



㉠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 동주, ㉣ 팬 다운, ㉡ 교차편집, ㉢ 역순행적, ㉤ 내레이션

• 체크 포인트 완성하기

인물	시를 사랑해 시인을 꿈꾸지만, 자신이 독립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에 1) □□□□ 을 느끼는 '동주'와 신념을 위해 거침없이 행동하지만 자신이 계획했던 독립운동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2) '□□'
배경	3) □□ □□□의 경성 옥인동 하숙집, 일본 후쿠오카의 감옥, 만주 용정
사건	경성에서 함께 대학을 다니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동주와 몽규가 4) □□□□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일본 감옥에 갇히게 되어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게 된다. 독립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서류에 서명하는 몽규와 독립운동에 투신하지 못한 채 시만 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서류에 서명하지 못한 5) □□는 알 수 없는 주사약으로 인해 옥중에서 숨지게 된다.

1) 부끄러움, 2) 몽규, 3) 일제 강점기, 4) 독립운동, 5) 동주

 핵심 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 33 옥인동 하숙집 (밤, 회상)

하숙방 창 위로 별이 반짝인다. 밤하늘에서 하숙집 지붕, 창문으로 점점 화면이 내려오며 팬 다운(pan down).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고 원고들을 교정하는 처중, 동주, 여진, 몽규.

처중 : (원고를 보며) 시는 동주 거 말고는 실을 만한 게 없다.

몽규 : 자기 생각을 펼치기에는 산문이 좋지. 시는 가급적 빠지고 인민을 나약한 감상주의자로 만드는 건 문학이 아니야. (여진을 힐끔 보며) 늦었지?

여진 : 아니. 좀 더 보고,

처중 : 불만한 게 있어? (원고를 하나 꺼내 들고 몽규를 바라보며) 이건 필력이 있긴 한데 이광수 선생 작품 같다.

처중이 건네는 원고를 잡아 들어 살펴보는 몽규.

몽규 : (원고를 던지며) 아직도 이광수 흉내를 내는 글을 쓰나……. 이광수, 최남선 같은 변절자들 따라 한 글들은 다 던져 버려.

동주 : 너 이광수 선생 작품만 봤었잖아?

몽규 : 어렸을 때 얘기지.

동주 : 지금도 마찬가지지. 관습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단정 짓는 건.

이상한 분위기에 긴장하는 친구들.

몽규 : 관습과 이념을 타파하자고 하는 일이야. 시를 빠자 그래서? (한숨을 쉬며) 나는 이 문예지를 하려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 시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동주 : 시도 자기 생각을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사람 마음속에 살아 있는 진실을 드러내야 문학은 온전하게 힘을 내는 거고, 그런 힘이 하나하나 모여야 세상이 변하는 거라고.

몽규 : 그런 힘이 어떻게 모이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가 없어서 문학으로 숨는 거밖에 더 돼?

동주 : 문학을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문학을 이용해서 예술을 팔아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누가 그렇게 변화시킨 적이 있는데? 민족주의니 애국주의니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 모든 가치를 팔아먹는 게 관습을 타파하는 일이야? 그거야말로 시대의 조류에 몸을 숨기는 썩어빠진 관습이지!

몽규와 동주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처중 : (수습하듯이) 아, 그래. 둘 다 맞아. 다 맞는 데……. (동주를 보며) 일단 시들은 정말 좋은 게 안 들어온 거 같아서 그래.

몽규 : (동주를 보다 여진에게) 늦었으니까 가 봐.

여진 : 어, 그래, 이제 가 봐야겠어. (동주를 보며) 같이 가 줄래?

잠시 멍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동주와 여진.

동주 : 내가 왜?

몽규 : 바람 좀 쐬고 와. 하루 종일 안 나갔잖아?

여진 : 동주한테 궁금한 것도 있어서 그래.

몽규 : (동주를 보며) 갔다 와.

S# 39 하숙방 (밤, 회상)

짐을 싸고 있는 몽규. 동주가 들어온다.

동주 : 짐은 왜 싸?

몽규 : 태평하게 대학 생활이나 즐길 때냐?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너 따라 경성에 온 거야.

동주 : 어디로 갈 건데?

몽규 : (동주를 잠시 바라보다 다시 짐을 싸며) 넌 모르는 편이 나야. 여진이나 잘 챙겨 집안도 좋고, 의식 있는 어른들이 주변에 많아. 정지용 선생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동주 : (한숨을 쉬며) 넌 왜 항상 이런 식이냐?

짐을 들고 나가려다 동주를 돌아보는 몽규.

몽규 : (조금 다가와 작은 소리로) 지금 임시 정부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 세상이 날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책만 보며 살겠니?

동주 : 임시 정부 사령부가 중경으로 갔다던데 거기까지 가려고?

몽규 : 몰라도 돼.

다시 짐을 들고 집을 나가려는 몽규. 몽규가 떠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동주.

동주 : 너는 왜 나랑 같이 가자는 말은 안 해?

몽규 : 넌 여기 있어야지.

몽규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는 동주,

S# 40 정지용의 집 (회상)

동주가 여진의 안내로 정지용 시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 정지용에게 큰절로 인사를 하는 동주, 술을 마시며 인사를 받는 정지용,

정지용 : 자네. (말을 멈추고 동주를 본다.)

동주 : (긴장한 표정으로 정지용을 본다.)

정지용 : 시인이더구먼.

동주 : 예?

정지용 : 읽어 봤더니 시인이야. 근데 시는 그만 써.

동주 : (의아하게 정지용을 바라본다.)

정지용 : 지금이 시나 쓸 시대인가? 지금은 아니야. 일본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 창씨개명이라니..... 일본 이름으로 일본 시를 써야 되는 세상이야. 연전 다닌다고?

동주 : 예.

여진과 동주에게도 술을 따라주는 정지용,

정지용 : 윤치호가 교장으로 간다더군. 이제 일본인 교장으로 바뀌는 것도 시간문제야. (잔을 비우며) 연전에서 조선을 교육할 수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고.....

동주 : 사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선 땅에 남아 있어야 할지.....

정지용 : 아니면? 임시 정부로 갈 텐가?

술잔을 비우다 멈칫하는 동주, 여진이 동주를 바라본다.

정지용 : 차라리 일본으로 가. 일본에도 좋은 선생이 많이 있어. 나도 교토에서 보낸 시절이 좋았어.

동주 : 그런데 창씨개명을 하면서까지 유학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유학을 간다는 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요.

정지용 : 부끄럽지. 부끄러운 일이야. 침묵하고 있는 나도 부끄럽고, 술에 취한 나도 부끄럽고, 일본으로 유학 가라고 권하는 나도 부끄럽네.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 이겠나?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네.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

S# 97 취조실 (동주와 몽규 교차 편집)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특고 형사. 속기사들이 수기를 한다. 책상에는 몽규가 앉아 있다. 서류를 몽규 앞에 던지는 특고, 특고가 던진 서류 클로즈업(Close-Up).

특고 : 해당 사항에 서명을 해라. 너는 모두 다 해당하니까 빠짐없이 해야 할 거야.

특고를 바라보는 동주.

동주 : 이런 일을 왜 하는 겁니까?

특고 : 뭐?

특고를 바라보는 몽규.

몽규 : 여기까지 잡아 와서 이런 요식 행위는 왜 하는 건가?

특고 : 문명국에서는 합법적 절차라고 부른다.

무섭게 특고를 노려보는 몽규.

동주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노려보는 특고, 서명란을 바라보는 동주, 다시 특고의 눈을 바라본다.

동주 : 총부리를 들이대고 서명을 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 손가락을 잘라 지장을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특고를 바라보는 동주.

특고 : 너희를 죽이는 일이 뭐가 어려운가? 대일본 제국은 법치 국가로 체제를 위협하는 너희 같은 자들에게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그 죄를 묻는다. 문명국과 비문명국의 차이.

동주 : 전쟁에서 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특고가 정곡을 찔린 듯 말이 없어진다. 여유롭게 특고를 바라보는 몽규.

몽규 : 너희들이 허울 좋은 명분을 항상 내세우는 이유가 뭔지 아냐? 열등감 때문이지. 비열한 욕망을 드러낼 자신이 없어서 명분과 절차에 기대는 거지.

특고 : 너 하나 죽일 용기가 없어서 이런 요식 행위를 한다고? 우리는 너희 같은 놈들을 죽일 힘이 없어서 국제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다. 문명국가기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

운 요식 행위를 하는 거다.

몽규 : 국제법? 여기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재판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 있나? 그 열등감을 숨기려고 서구 사법 제도를 흉내 내면서 문명이라고 부르는 건가?

특고 : 서류를 보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서명을 해라. 죽음이 두려워 궤변만 늘어놓지 말고!

서류를 보는 동주.

동주 : (특고를 보며) 왜 우리 죽음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전쟁 이후가 두려워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동주를 바라보는 특고

서류를 보는 몽규.

특고 : 명분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라는 거다.

몽규 : 그래? 사실로 만들어 줄까? 얼마든지 해 주지.

특고 :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당당하게 서류에 서명해라.

자신 앞에 놓인 서류를 살피며 서명을 하는 몽규.

몽규 : ‘재일 조선인 유학생들을 규합하여 사상 교육을 시키고…….’ 내가 제대로 못 시켜서 부끄럽다. (서명을 하며) 내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서류의 페이지를 넘기며 항목마다 서명을 하는 몽규.

몽규 : (이어서 읽으며) ‘비밀리에 조선어 문학과 서적을 유통시키며…….’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못해서 한스럽다. ‘징집령을 이용하여 황군 내 조선인 반군 조직을 결성하고 활용할 군사적 계획을 지시했으며.’ (눈물을 글썽이며) 아, 이게 정말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내가 정말 그렇게 못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서명을 한다. 부끄러워서…….

특고가 말없이 바라본다. 항목마다 서명을 하는 몽규. 서명을 하는 몽규의 손 클로즈업.

특고 : 몽규도 서명한 걸 너는 왜 못 해? 빨리 서명해!

서류를 드는 동주.

동주 :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말을 들으니 정말로 부

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시를 쓰길 바라고 시인이 되길 원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앞장서지 못하고 따라나서기만 한 게 또 너무 부끄럽고,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 하겠습니다.

자신 앞에 놓인 서류를 찢는 동주.

S# 101 형무소

하얀 천에 가려진 동주. 동주 부가 천을 걷으니 하얀 동주의 얼굴이 나온다. 오열하는 아버지들.

내레이션(동주 목소리) : 서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S# 102 독방 (밤)

누워 있다가 괴로워하며 각혈을 하는 동주, 간수들이 급하게 들어온다. 실려 나가는 동주.

내레이션(동주 목소리) :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인서트(insert). 형무소 창살 사이로 밤하늘이 보인다. 별이 반짝인다.

S# 103 화장터

자식의 유골을 하나씩 들고 오는 몽규 부와 동주 부. 몽규 부가 유골함을 땅에 떨어뜨린다. 깜짝 놀라 유골을 쓸어 담는 몽규 부.

동주 부 : 몽규가 뼈 한 조각도 일본 땅에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일본 흙까지 담아 가면 어찌자는 거야!

울면서 조심스럽게 유골을 골라 담는 몽규 부.

S# 104 용정

마을 어귀로 들어서는 몽규 부와 동주 부.

내레이션(동주 목소리) :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

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언덕 위로 밤이 찾아오며 별이 빛난다.

1 S# 33에 나타난 인물 간의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가 산문에 비해 인민을 나약한 감상주의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몽규의 생각에 대하여 동주는 반발하고 있다.
- ② 동주는 몽규가 관습과 이념에 사로잡혀 시에 대해 함부로 단정 짓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몽규와 대립하게 되었다.
- ③ 몽규는 관습과 이념을 타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동주는 이와 같은 생각에 반대한다.
- ④ 처중은 문예지에 실을 만한 좋은 시가 안 들어왔다는 점에서 몽규의 문학관을 지지하며 그의 입장에서 동주를 설득한다.
- ⑤ 여진은 동주와 몽규의 갈등에 직접 끼여들지는 않지만, 동주에게 몽규의 생각에 대해 말하며 갈등 해소를 유도한다.

2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주: 불의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서명을 거부하였다.
- ② 몽규: 자신의 학업보다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 ③ 정지용: 일제의 횡포에 침묵하고 창씨개명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 ④ 특고: 입증되지 않은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문명국의 합법적 절차라고 우겼다.
- ⑤ 동주 부: 일본의 흙이 몽규의 유골에 섞이는 것은 몽규의 유언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3 위와 같은 글에 사용되는 시나리오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팬 다운: 카메라가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기법.
- ㉡ 프레임 인: 피사체가 화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촬영하는 기법.
- ㉢ 내레이션: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장면의 진행에 따라 해설하는 일, 또는 그런 해설.
- ㉣ 교차편집: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인물의 극적 관계나 극적 정황의 장면을 급격하게 번갈아 가며 보여주는 편집 기법.
- ㉤ 클로즈업: 배경이나 사물, 또는 인물의 일부를 확대하며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 촬영 기법
- ㉦ 인서트: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쳐지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편집 기법

- ① ㉠, ㉢ ② ㉠, ㉦
- ③ ㉡, ㉢ ④ ㉡, ㉤
- ⑤ ㉡, ㉦

4 <보기>는 윗글에 나타난 사건을 순서에 상관없이 정리한 것이다.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기>

- ㉠ 옥사한 동주와 몽규는 유골함에 담긴 채 고향으로 돌아온다.
- ㉡ 특고가 내민 서류에 몽규는 서명을 하고, 동주는 서명을 거부한다.
- ㉢ 몽규는 임시 정부로 가겠다고 떠나고, 동주는 그 모습을 지켜본다.
- ㉣ 동주는 여진과 함께 정지용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상황과 앞날에 대해 고민한다.
- ㉤ 동주와 몽규는 처중, 여진과 함께 문예지를 만들다가 문예지에 실을 글을 놓고 갈등한다.

- ① ㉢-㉡-㉤-㉠-㉣ ② ㉢-㉤-㉡-㉠-㉣
- ③ ㉡-㉤-㉢-㉠-㉣ ④ ㉤-㉡-㉢-㉠-㉣
- ⑤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S#33 옥인동 하숙집 (밤, 회상)

하숙방 창 위로 별이 반짝인다. 밤하늘에서 하숙집 지붕, 창문으로 점점 화면이 내려오며 ㉠팬 다운(pan down).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고 원고들을 교정하는 처중, 동주, 여진, 몽규.

(나) S#34 골목길 (밤, 회상)

㉡프레임 인(frame in). 밤길을 나란히 걸어오는 동주와 여진

여진 : 동주는 문학을 전공하지?

동주 : (서먹해하며) 어, 그래. 문학. 영문학.

여진 :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야?

동주 : 뭐……. 다 좋아.

별빛을 올려다보는 동주.

㉢내레이션(동주 목소리) : 프랑스의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히 멀 듯이.

여진 : 동주가 시를 사랑하는 거만큼 몽규도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동주 : 뭐?

여진 : 몽규가 이념에 사로잡혀서 시를 폄하하는 건 아니라고.

동주 : (어색하게) 어, 그래.

말없이 걸어가는 두 사람. 별빛이 반짝인다.

여진 : 정지용 선생님한테 인사드리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동주 : 난 아직 등단 작가도 아니고……. (수줍어하며) 정지용 선생님은 문인들하고도 연락을 끊었다고들 하던데…….

여진 : 학생들은 만나 주셔.

동주 : 아……. 그래?

내레이션(동주 목소리) :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여진 : 동주가 쓴 다른 시도 봤어.

동주 : (깜짝 놀라 멈추며) 어, 어떻게?

여진 : 몽규가 보여 줬어.

동주 : 아직 남한테 보여 줄 시들이 아닌데…….

여진 : 난 좋았어.

동주 : 너무 부끄러워서 태워 버리려고 한 건데……. 몽규 그 자식이 멋대로 가져가서 문예지에 넣겠다고. 진짜 그럴 시들이 아닌데…….

여진 : 왜 그렇게까지 부끄러워해? 다른 작품들처럼 좋던데. 그런데……. 좋았는데 읽고 나서 왠지 좀 쓸쓸해졌어. (미소를 띠고) 왜 그럴까?

동주 : (정색을 하고) 몽규한테 가 봐야겠어.

여진 : 다 왔는데? 기숙사 앞이잖아?

동주가 고개를 들어 보니 기숙사 정문 앞이다.

동주 : 아, 그래……. 다 왔네. 나 갈게

뒤돌아 급하게 가는 동주.

여진 : 동주야! 정지용 선생님 뵙고 싶지?

동주 : (돌아보며 멋쩍게 웃는다.)

여진 : 같이 가자.

내레이션(동주 목소리) :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다) S#97 취조실

자신 앞에 놓인 서류를 살피며 서명을 하는 몽규.

몽규 : ‘재일 조선인 유학생들을 규합하여 사상 교육을 시키고…….’ 내가 제대로 못 시켜서 부끄럽다. (서명을 하며) 내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서류의 페이지를 넘기며 항목마다 서명을 하는 몽규.

몽규 : (이어서 읽으며) ‘비밀리에 조선어 문학과 서적을 유통시키며…….’, 내가 정말 이렇게 못해서 한스럽다. ‘징집령을 이용하여 황군 내 조선인 반군 조직을 결성하고 활용할 군사적 계획을 지시했으며.’ (눈물을 글썽이며) 아, 이게 정말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내가 정말 그렇게 못 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서명을 한다. 부끄러워서…….

특고가 말없이 바라본다. 항목마다 서명을 하는 몽규. 서명을 하는 몽규의 손 ㉔클로즈업.

(라) S#100 면회실

앉아 있는 동주 부와 몽규 부. 몽규가 홀로 들어온다.

몽규 부 : 도대체 물골이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거야?

동주 부 : 동주는? 동주는 어디 있느냐?

떨리는 몽규의 눈빛.

몽규 : 동주는……. 죽었습니다.

아연실색하는 동주 부.

몽규 : 저도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팔뚝을 걷어 올려 주삿바늘 자국을 보여 주는 몽규.

몽규 : 이 주사를 맞고 죽으면 시체를 대학 실험실로 가져가는데……. ㉕그 전에 뺏조각 하나도 이 땅에 남아 있지 않게 해주세요.

어이없어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아버지들.

(마) S#102 독방(밤)

누워 있다가 괴로워하며 각혈을 하는 동주. 간수들이 급하게 들어온다. 실려 나가는 동주.

내레이션(동주 목소리) :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㉖인서트(insert). 형무소 창살 사이로 밤하늘이 보인다. 별이 반짝인다.

- 신연식 각본, 「동주」 -

5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인물 간의 직접적인 발화 없이 배경과 인물들의 동작을 통해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 ② (나)는 ‘쓸쓸해졌’다는 인물의 대사를 통해 작품 전체에 형성되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는 인물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힘으로 발생한 일 대해 가지는 죄책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라)는 인물이 한 말에 대한 근거를 행동으로 보여 줌으로써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있다.
- ⑤ (마)는 상징성을 가지는 소재를 삽입하여 인물이 꿈꾸었던 이상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6 ㉔~㉖에 대한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 S#33에서 밤하늘부터 하숙집 방으로 화면이 내려오는 것은 인물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집중도를 높인다.
- ② ㉕ : S#34에서 동주와 여진이 화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화면 속 인물의 관계와 대화에 주목하게 한다.
- ③ ㉖ : S#34에서 동주의 감정과 생각을 담은 시를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은 장면의 서정적 분위기를 강화한다.
- ④ ㉔ : S#97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몽규의 손을 크게 나타내는 것은 서명을 망설이는 몽규의 심정을 보여 준다.
- ⑤ ㉖ : S#102에서 동주가 실려 나가는 장면 사이에 하늘의 별을 삽입하는 것은 인물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상징적으로 전달한다.

7 ㉖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본 제국의 대학 실험실에는 죽은 이후에야 가겠다는 결연한 태도를 드러낸다.
- ② 자신의 죽음이 가족에게 무의미하게 여겨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드러낸 것이다.
- ③ 가족만큼은 일본 제국의 방침을 따라 안전하게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 ④ 죽은 이후에도 일본 제국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겠다는 강렬한 저항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⑤ 식민 권력에의 희생으로 독립운동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드러낸 것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S#38 취조실

속기사들이 일본어 번역이 끝난 동주의 원고를 정리한다. 마지막 시를 일본어로 쓰고 특고에게 넘기는 동주. 특고가 여러 장의 서류 봉치를 동주 앞에 내민다. 서류를 살펴보는 동주

동주 : (서류를 보며) 교토의 조선인 유학생을 규합해 유사시 무장봉기를 획책.....

고개를 드는 동주에게 특고가 다가온다.

특고 : 송몽규와 함께 꾸민 일이잖아? 사인해.

동주 : (서류를 보며) 비밀리에 조선어 교육 활동과 징집령을 이용해 황군의 주요 거점 시설로 침투.....

특고 : 송몽규와 네가 계획했던 일 아닌가?

동주 :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특고 : (동주의 원고 상자를 만지며) 너의 사상적 바탕이 여기 다 있잖아? ◎너는 그저 송몽규의 리더십을 추종하는 문학청년일 뿐이란 건가?

동주 : 몽규도 우리와 함께 문예지를 만든 문학청년일 뿐입니다.

특고 : 서구 문학에 빠져든 나약한 조선인 유학생. 현실을 외면하거나 보지 못하는 이상주의자. 나르시시즘에 빠진 병원 문학, 순진한 문학청년. 모든 일은 송몽규의 지시! 그래서 난 억울하다, 그런 얘기인가?

동주 : ◎몽규도 평범한 유학생일 뿐입니다!

S#39 하숙방(밤, 회상)

집을 싸고 있는 몽규. 동주가 들어온다.

동주 : 짐은 왜 싸?

몽규 : 태평하게 대학 생활이나 즐길 때냐?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너 따라 경성에 온 거야.

동주 : 어디로 갈 건데?

몽규 : (동주를 잠시 바라보다 다시 짐을 싸며) 넌 모르는 편이 나야. 여진이나 잘 챙겨. 집안도 좋고, 의식 있는 어른들이 주변에 많아. 정지용 선생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동주 : (한숨을 쉬며) 넌 왜 항상 이런 식이냐?

짐을 들고 나가려다 동주를 돌아보는 몽규.

몽규 : (조금 다가와 작은 소리로) 지금 임시 정부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 세상이 날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책만 보며 살겠니?

동주 : 임시 정부 사령부가 중경으로 갔다던데 거기까지 가려고?

몽규 : 몰라도 돼.

다시 짐을 들고 집을 나가려는 몽규. 몽규가 떠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동주.

동주 : 너는 왜 나랑 같이 가자는 말은 안 해?

몽규 : ◎넌 여기 있어야지.

몽규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는 동주.

S#40 정지용의 집(회상)

동주가 여진의 안내로 정지용 시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정지용에게 친절로 인사를 하는 동주. 술을 마시며 인사를 받는 정지용.

정지용 : 자네. (말을 멈추고 동주를 본다.)

동주 : (긴장한 표정으로 정지용을 본다.)

정지용 : 시인이더구먼.

동주 : 예?

정지용 : 읽어 봤더니 시인이야. 근데 시는 그만 써.

동주 : (의아하게 정지용을 바라본다.)

정지용 : 지금이 시나 쓸 시대인가? ◎지금엔 아니야. 일본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 창씨개명이라니..... 일본 이름으로 일본 시를 써야 되는 세상이야. 연전 다닌다고?

동주 : 예.

여진과 동주에게도 술을 따라 주는 정지용.

정지용 : 윤치호가 교장으로 간다더군. 이제 일본인 교장으로 바뀌는 것도 시간문제야. (잔을 비우며) 연전에서도 조선어 교육을 못 할 건데 이제 어떻게 하냐고.....

동주 : 사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선땅에 남아 있어야 할지.....

정지용 : 아니면? 임시 정부로 갈 텐가?

술잔을 비우다 멈칫하는 동주. 여진이 동주를 바라본다.

정지용 : 차라리 일본으로 가. 일본에도 좋은 선생이 많이 있어. 나도 교토에서 보낸 시절이 좋았어.

동주 : 그런데 창씨개명을 하면서까지 유학을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유학을 간다는 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요.

정지용 : 부끄럽지. 부끄러운 일이야. 침묵하고 있는 나도 부끄럽고, 술에 취한 나도 부끄럽고, 일본으로 유학 가라고 권하는 나도 부끄럽네.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 이겠나?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네.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

(중략)

S#97 취조실(동주와 몽규 교차 편집)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특고 형사. 속기사들이 수기를 한다. 책상에는 몽규가 앉아 있다. 서류를 몽규 앞에 던지는 특고. 특고가 던진 서류 클로즈업(Close-Up).

특고 : 해당 사항에 서명을 해라. 너는 모두 다 해당하니까 빠짐없이 해야 할 거야.

특고를 바라보는 동주.

동주 : 이런 일을 왜 하는 겁니까?

특고 : 뭐?

특고를 바라보는 몽규.

몽규 : 여기까지 잡아 와서 이런 요식 행위는 왜 하는건가?

특고 : 문명국에서는 합법적 절차라고 부른다.

무섭게 특고를 노려보는 몽규.

동주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노려보는 특고. 서명란을 바라보는 동주. 다시 특고의 눈을 바라본다.

동주 : 총부리를 들이대고 서명을 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 손가락을 잘라 지장을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특고를 바라보는 동주.

특고 : 너희를 죽이는 일이 뭐가 어려운가? 대일본제국은 법치 국가로 체제를 위협하는 너희 같은 자들에게도 합법적인 절차

차를 거쳐 그 죄를 묻는다. 문명국과 비문명국의 차이지.

동주 : 전쟁에서 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특고가 정곡을 찔린 듯 말이 없어진다. 여유롭게 특고를 바라보는 몽규.

몽규 : 너희들이 허울 좋은 명분을 항상 내세우는 이유가 뭔지 아나? 열등감 때문이지. 비열한 욕망을 드러낼 자신이 없어서 명분과 절차에 기대는 거지.

특고 : 너하나 죽일 용기가 없어서 이런 요식 행위를 한다고? 우리는 너희 같은 놈들을 죽일 힘이 없어서 국제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다. 문명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요식 행위를 하는 거다.

몽규 : 국제법? 여기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재판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 있나? 그 열등감을 숨기려고 서구 사법 제도를 흉내 내면서 문명이라고 부르는 건가?

특고 : 서류를 보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서명을 해라. 죽음이 두려워 귀변만 늘어놓지 말고!

서류를 보는 동주.

동주 : (특고를 보며) 왜 우리 죽음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전쟁 이후가 두려워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동주를 바라보는 특고./서류를 바라보는 몽규.

특고 : 명분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라는 거다.

몽규 : 그래? 사실로 만들어 줄까? 얼마든지 해 주지.

특고 : 죽음이 두려워 않다면 당당하게 서류에 서명을 해라.

자신 앞에 놓인 서류를 살피며 서명을 하는 몽규.

몽규 : ‘재일 조선인 유학생들을 규합하여 사상 교육을 시키고…….’ 내가 제대로 못 시켜서 부끄럽다. (서명을 하며) 내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서류의 페이지를 넘기며 항목마다 서명을 하는 몽규.

몽규 : (이어서 읽으며) ‘비밀리에 조선어 문학과 서적을 유통시키며…….’, 내가 정말 이렇게 못해서 한스럽다. ‘징집령을 이용하여 황군 내 조선인 반군 조직을 결성하고 활용할 군사적 계획을 지시했으며.’ (눈물을 글썽이며) 아, 이게 정말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내가 정말 그렇게 못 해서 너무 부

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서명을 한다. 부끄러워서.....

특고가 말없이 바라본다. 항목마다 서명을 하는 몽규. 서명을 하는 몽규의 손 클로즈업.

특고 : 몽규도 서명한 걸 너는 왜 못 해? 빨리 서명해!

서류를 드는 동주.

동주 :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말을 들으니 정말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시를 쓰길 바라고 시인이 되길 원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앞장서지 못하고 따라나서기만 한 게 뚝 너무 부끄럽고,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 하겠습니다.

- 신연식 각본, 「동주」 -

10 윗글의 '몽규'가 서류에 서명한 이유와 '동주'가 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를 각각 서술하시오.

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주가 긴장한 것과 달리 정지용은 동주가 쓴 시를 좋게 평가하고 있다.
- ② 동주는 자신을 서구 문학에 빠져든 나약한 조선인 유학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③ 몽규는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을 고려하여 동주를 따라 경성에 온 것임을 말하고 있다.
- ④ 정지용은 일본 유학을 권하며, 침묵하고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 ⑤ 특고는 동주를 죽일 수 있지만 문명국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합법적 절차를 지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동주가 한 답변을 특고의 시선에서 재해석 한 말이다.
- ② ㉡ : 특고로부터 무장봉기를 획책했다고 몰리고 있는 몽규를 옹호하는 대사이다.
- ③ ㉢ : 동주가 여진과 함께 경성에 남아 좋은 어른들에게 도움을 받는 삶을 살길 바라는 말이다.
- ④ ㉣ : 일본으로 가서 일본 이름으로 시를 쓰겠다는 동주를 만류하는 대사이다.
- ⑤ ㉤ : 유학 가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동주를 위로하는 말이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해설] S# 33의 몽규와 동주의 갈등 상황에서 처중은 “아, 그래. 둘 다 맞아. 다 맞는데……. 일단 시들은 정말 좋은 게 안 들어온 거 같아서 그래.”라고 말한다. 이는 동주와 몽규의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둘의 의견이 맞다고 말하며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시는 가급적 빠자”고 몽규가 말한 이유를 설명하며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다. 이를 몽규의 문학관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S# 33의 “시는 가급적 빠자고, 인민을 나약한 감상주의자로 만드는 건 문학이 아니야.”라는 대사에서 몽규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지금도 마찬가지지. 관습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단정 짓는 건.”이라는 동주의 대사에서 몽규의 생각에 대해 그가 반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S# 33의 “지금도 마찬가지지. 관습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단정 짓는 건.”, “시도 자기 생각을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사람 마음속에 살아 있는 진실을 드러내야 문학은 온전하게 힘을 내는 거고, 그런 힘이 하나하나 모여야 세상이 변하는 거라고.”라는 동주의 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S# 33의 “관습과 이념을 타파하자고 하는 일이야. ~ 나는 이 문예지를 하려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라는 몽규의 대사와 “문학을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 민족주의니 애국주의니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 모든 가치를 팔아먹는 게 관습을 타파하는 일이야? 그거야말로 시대의 조류에 몸을 숨기는 썩어빠진 관습이지!”라는 동주의 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동주와 몽규가 대립하는 S# 33에서 여진은 갈등 상황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동주와 단둘이 있는 S# 34에서 여진은 “동주가 시를 사랑하는 거만큼 몽규도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몽규가 이념에 사로잡혀서 시를 폄하하는 건 아니라고.”라는 말로 몽규의 생각에 대해 말하며 갈등 해소를 유도하고 있다.

2) [정답] ③

[해설] S# 40에서 정지용은 일제의 창씨개명령에 한탄하였고, 이러한 세상에서 침묵하고 있는 자신, 일본으로 유학 가라고 권하는 자신이 부끄럽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지용이 창씨개명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① S# 97에서 동주는 “이런 세상에서 … 앞장서지 못하고 따라나서기만 한 게 또 너무 부끄럽고,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 하했습니다.”라고 하며 서명을 거부하였다. ② S# 39에서 몽규가 “지금 임시 정부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 세상이 날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책만 보며 살겠니?”라고 말하며 떠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S# 97에서 특고는 동주와 몽규가 실제로 한 일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며 인정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합법적 절차라고 우기고 있다. ⑤ S# 103에서 몽규 부가 떨어뜨린 몽규의 유골을 쓸어 담을 때 “몽규가 뼈한 조각도 일본 땅에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일본 흙까지 담아 가면 어찌자는 거야!”라고 말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정답] ②

[해설] ⑥ ‘팬 다운’은 카메라가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

라, 아래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기법이다. ① ‘인서트’는 장면과 장면 사이에 다른 장면이나 글자 또는 사진을 삽입하는 편집 기법을 말한다.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쳐지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편집 기법’은 ‘오버랩’이다. / ⑥ ‘프레임 인’은 피사체가 화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촬영하는 기법을 말한다. ⑦ ‘내레이션’은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장면의 진행에 따라 해설하는 일을 말한다. ⑧ ‘교차편집’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인물의 극적 관계나 극적 상황의 장면을 급격하게 번갈아 가며 보여주는 편집 기법을 말한다. ⑨ ‘클로즈업’은 배경이나 사물, 또는 인물의 일부를 확대하며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 촬영 기법을 말한다.

4) [정답] ⑤

[해설] 윗글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주와 몽규는 연희전문학교 재학 시절 처중, 여진과 함께 문예지를 만들다가 갈등하며, 이는 S#33에 드러난다(㉔). 몽규는 임시 정부로 떠나고 동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이는 S#39에 드러난다(㉕). 동주가 여진과 함께 정지용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나누는데, 이는 S#40에 드러난다(㉖). 이후 일본 유학 중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된 몽규와 동주는 특고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라는 강요를 받고, 이에 대해 몽규는 서명을 하고 동주는 거부한다. 이는 S#97에 드러난다(㉗). 형무소에 갇혀 있던 동주와 몽규는 결국 옥사하고 유골함에 담긴 채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 이는 S#101~S#104에 드러난다(㉘).

5) [정답] ③

[해설] S#97에서 몽규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 ‘부끄럽다’고 말하지만, 이는 자신이 해야 했던 일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다. 어찌할 수 없는 힘, 즉 운명에 따라 발생한 일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다는 한탄과 부끄러움을 드러낸 것이다. ① S#33은 장면을 설명하는 지문만 제시되고 있다. 팬 다운 기법을 사용해 밤하늘에서 하숙집 창으로 화면이 내려오면서 인물들이 원고를 교정하는 장면이 보인다. 직접적인 대사 없이, 상황을 통해 인물의 동작만이 나타나고 있다. ② S#34에서 여진이 동주의 작품에 대해 ‘좋았는데 읽고 나서 웬지 좀 쓸쓸해졌어.’라고 말한다. 이는 동주의 시에 인물의 쓸쓸한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 주며, 동주의 삶을 다루는 작품 전체에도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④ S#100에서 몽규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증명하듯 주삿바늘 자국이 가득한 팔을 건어 보여 준다. 죽으면 시체를 대학 실험실로 가져가는데 그 전에 뼈조각 하나도 이 땅에 남아 있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 역시 몽규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⑤ S#102의 각혈하는 동주가 실려 나가는 장면에서 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인서트로 삽입된다. 별이 동주가 이상적으로 꿈꾸었던 것을 상징한다고 하면, 동주의 죽음을 암시하는 장면 뒤에 삽입된 별은 그가 이루고자 했던 이상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끝나버린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정답] ④

[해설] 클로즈업은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S#97에서 몽규는 서류의 항목을 하나씩 읽으며 자

신이 해야 했는데 해내지 못한 일들에 대해 울분을 표출하고 있다. 즉 서명을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저항의 의지로 서명을 이어가는 모습을 클로즈업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① 팬 다운은 카메라가 아래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기법을 말한다. S#33에서 밤하늘에서부터 인물이 있는 하숙집 방으로 화면이 아래로 이동하는 것은 화면을 자연스럽게 전환하면서 인물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강조한다. 즉 인물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집중도를 높인다. ② 프레임 인은 촬영 대상이 화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S#34에서 동주와 여진은 골목길의 화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를 통해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교류함을 보여 주고,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를 암시한다. 즉 인물의 관계와 대화에 주목하게 한다. ③ 내레이션은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내용이나 줄거리를 장외에서 해설하는 일을 말한다. S#34에서는 동주가 쓴 시를 동주가 읽는 것으로 내레이션이 삽입된다. 인물 내면 및 정서와 관련된 시를 목소리로 제시함으로써 서정적인 분위기를 강화한다. ⑤ 인서는 장면과 장면 사이에 다른 장면을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S#102에서 독방에서 실려 나가는 동주를 보여주다가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장면을 삽입하는 것은 인물의 죽음을 상징함과 동시에 인물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정답] ④

[해설] 몽규는 '이 주사를 맞고 죽으면 시체를 대학 실험실로 가져가는데……'라고 말하며 그 전에 이 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즉 시체를 대학 실험실로 가져갈 수 없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죽은 후에도 일본 제국의 도구로는 절대 이용되지 않겠다는 강렬한 저항 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① 몽규는 죽은 후에도 자신의 시체가 일본 제국의 실험실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죽은 후에야 일본 제국의 실험실로 가겠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다. ② 몽규는 죽은 후에 자신의 시체가 일본 제국의 실험실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즉 이는 자신의 죽음이 가족에게 무의미하게 여겨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시체가 일본 제국에게 넘어가 이용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드러낸 것이다. ③ 몽규는 죽은 후에 자신의 시체가 일본 제국의 실험실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랄 뿐, 가족이 일본 제국의 방침을 따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본 제국의 방침을 피해 자신의 시체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⑤ 몽규는 죽은 후에도 자신의 시체가 일본 제국에게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실험실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땅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즉 자신의 죽음이 독립운동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여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본 제국에 희생하지 않겠다는 강렬한 저항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8) [정답] ②

[해설] '서구 문학에 빠져든 나약한 조선인 유학생. 현실을 외면하거나 보지 못하는 이상주의자'에서 동주를 서구 문학에 빠져든 나약한 조선인 유학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인물은 '특고'이다. ① 동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정지용을 보고, 정지용은 동주의 시를 읽고는 '읽어 봤더니 시인이야'라고 말하며 동주가 쓴 시를 좋

게 평가하고 있다. ③ 윗글에 따르면 '태평하게 대학 생활이나 즐길 때냐?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너 따라 경성에 온 거야'에서 몽규는 자신의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동주를 따라 경성에 왔다고 말하고 있다. ④ '부끄러운 일이야. 침묵하고 있는 나도 부끄럽고, 술에 취한 나도 부끄럽고, 일본으로 유학 가라고 권하는 나도 부끄럽네'에서 정지용은 침묵하며 일본으로 유학 가라고 권하는 자신을 부끄럽다고 여기고 있다. ⑤ 윗글에 따르면 '너희를 죽이는 일이 뭐가 어려운가? 대일본제국은 법치 국가로 체제를 위협하는 너희 같은 자들에게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그 죄를 묻는다. 문명국과 비문명국의 차이지'에서 특고는 동주를 죽일 수 있지만, 문명국으로서 합법적 절차를 지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정답] ④

[해설] 정지용은 지금이 시를 쓸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조선 사람임에도 일본 이름으로 일본 시를 써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윗부분에서 정지용이 일본으로의 유학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주가 일본으로 가서 창씨개명을 하겠다고 먼저 나선 것이 아니며 정지용 또한 이를 만류하려고 한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① 동주는 몽규와 함께 계획한 일이라고 묻는 특고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에 특고는 '너는 그저 송몽규의 리더십을 추종하는 문학청년일 뿐이란 건가?'라며 동주의 말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①은 동주가 한 답변을 특고의 시선에서 재해석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윗글에 따르면 동주는 특고에게 몽규는 무장 봉기를 계획한 주동자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유학생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②은 동주가 특고로부터 무장봉기를 획책했다고 물리고 있는 몽규를 옹호하는 대사라고 볼 수 있다. ③ 윗글에 따르면 몽규는 '여진이나 잘 챙겨. 집안도 좋고, 의식 있는 어른들이 주변에 많아. 정지용 선생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될 거야'라고 말하며 동주에게 경성에 남으라고 말한다. 따라서 ③은 몽규가 동주가 여진과 함께 경성에 남아 좋은 어른들에게 도움을 받는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창씨개명을 하면 서까지 일본으로 유학으로 가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는 동주에게 정지용은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⑤은 정지용이 유학 가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동주를 위로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10) [정답] 몽규는 독립을 위한 무장 투쟁을 계획했지만, 서류에 있는 내용대로 독립운동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에 서명을 했다. 동주는 일제 강점하의 현실에서 시인이 되기를 원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서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해설] 특고가 내멘 서류의 항목마다 서명을 하는 몽규는 이 항목처럼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자신은 결국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에 서명을 계속 이어 나간다. 반면 동주는 특고의 말을 듣고 몽규처럼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고 시를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시인이 되길 바랐던 자신이 부끄럽다며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